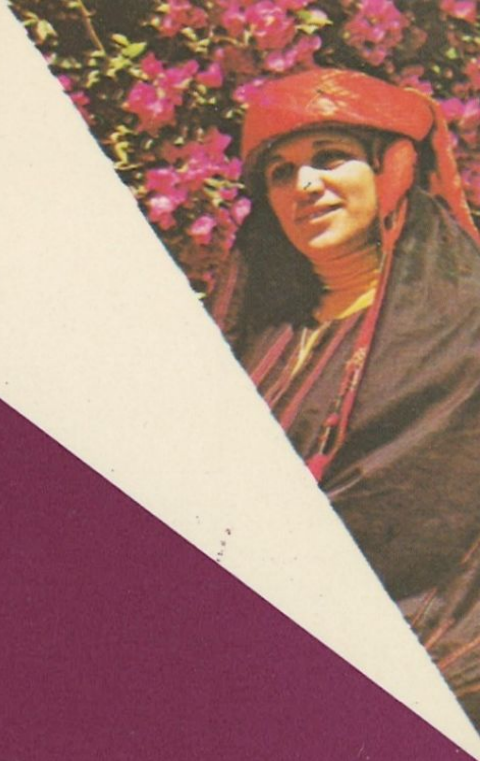


십약 성서의 여성관

셜리 스티븐 저 정 양숙 역

요단출판사



『신약성서의 여성관』은 저자가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16년에 걸친 영적인 여정의 결과이다. 저자는 이 탐구를 행할 때에 성서의 영감에 대한 깊은 확신에 근거하여 성서 해석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신약성서가 말씀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성서의 광범위한 영역을 책임있게 해석한 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피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 극단적인 견해는 성서에 대하여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서를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간에 상관없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 극단적인 견해는 실제로 바울 서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서의 영감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두가지 극단적인 태도 사이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명백한 해답이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셜리 스티븐(Shirley Stephen) 여사는 자유 기고가이며 편집자이다. 그녀는 그랜드 캐년 대학(B. A.)과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B. D.; M. div.)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학습 교재를 저술하였고 *Under the SS Shadow*의 공동 집필자이기도 하다.



신약성서의 여성관

설리 스티븐 저
정 양 숙 역

요 단 출 판 사

**A
New
Testament
View of
Women**
Shirley Stephens

translated by

Chung, Yang Suk

Jordan Press
with Permission of
Broadman Press • Nashville, Tennessee

순례의 길을 함께 한 나의 남편
빌에게 감사 드립니다.

역자 서문

본서의 번역을 끝내면서 역자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역자가 본서를 처음 대했을 때 서재에서 본서를 쥐고 이렇게 기도 했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 책이 반드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빛을 보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확신한다. 본서를 출판하기로 결정한 침례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와 요단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계속 축복하셔서 깨끗하고 유용하며 성숙한 그릇으로 계속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본서에서 저자는 성경의 본뜻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여러가지 영어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역서에서는 한글개역판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987. 2.역자

목차

역자 서문 / 9

여정 / 13

제 1 부 / 여성에 대한 예수의 견해 / 27

1. 하나님 나라의 여성 31
2. 예수의 지상사역과 여성 57

제 2 부 / 여성에 대한 사도들의 견해 / 83

3. 신약성서가 제시하는 가정의 여성 87
4. 신약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여성 121
5. 신약교회에서의 여성과 문제들 147
6. 여성 : 모든 관계에서의 평등 171

결론 / 185

참고문헌 / 197

신약성서의 여성관

여 정

1961년에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최소한 조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말이다. 여권 운동도 시작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해에 나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게된 경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나의 어깨를 툭 치셨다. 말하자면 오직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내가 소위 “여성의 일” 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은 내게 남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하였다. 그 당시 나의 남편 빌(Bill)은 서남 침례 신학 대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학생이면서 레오나드 백화점에서 정식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의 시간은 가사와, 세살박이 라우라(Laura)와 일년 육개월짜리 파울라(Paula), 2개월 난 그레그(Greg)를 돌보는 일로 가득차 있었다.

그날은 텍사스, 포트 워스(Fort Worth)의 전형적인 뜨거운 팔월이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나의 매일의 일과라고 할 수 있는 세탁일을 하고 있었다. 세탁을 위해 나는 중고 자동세탁기를 가지고 있었는데(내가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수기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세탁한 빨래를 한아름 안고 그것들을 널

기 위해 뒷뜰로 갔다. 여느때 같으면 두 딸이 내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터인데 그 날은 장난감으로 시가지를 만들기에 분주했다. 그레그(Greg)는 요람속에서 천정을 보며 놀고 있었다.

그 날 나는 참으로 기대와 행복에 가득차 있었다. 삼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고향에 가려던 참이었다. 빌(Bill)과 나는 아리조나(Arizona)로 여행하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1958년에 포트 워스(Fort Worth)로 이사온 후로 가족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여동생과 그 남편 만이 우리의 아이들을 보았다. 매년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으나 항상 일이 생겼었다. 보통 큰 차의 수리비 청구서가 문제되곤 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다.

“모두를 만날 수 있다니!” 기저귀를 하나씩 하나씩 널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께서는 어린 것들을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하실 것이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좋아서 어쩔줄 모를거야. 또 내가 자랐던, 낳았지만 넓은 집을 좋아할거야.”

미소편 사람들과 낯익은 풍경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나의 생각들은 여기 저기로 날아다녔다.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결단한 갈보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를 그려보았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일이야.” 나는 교회의 젊은 여성들의 지도자였던 버틀러 부인(Mrs. Butler)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무척이나 쇠약했었다. 그녀가 우리의 후원자가 된 것은 정말 희생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우리집에서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께 대한 결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은 나를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해가 1954년 이었다.

다음으로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엘리자벳(Elizabeth)이 마

음에 떠올랐다. 그녀는, 내가 신앙으로 결단을 하도록 도와 주면서 어떤 강압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던 무척이나 친절한 친구였다. 나는 또 주일학교 교사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날 아침에 그녀가 가르쳤던 과목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개심할 때 체험했었던 것과 같은 또 하나의 계기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경험은 그것과 꼭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예화는 내게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다. 내게 이 날이 있기 칠년 전, 부흥회 기간중, 성령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이심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로 의뢰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 확신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경험을 한번도 잊고 지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녀의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주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같은 일이 거듭될 수는 없었다. 주께서는 처음 초청에 대해 내가 그저 “예”라고 답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고 본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목이 너무 메어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미국교회에서는 보통 예배시간 전에 모든 연령층이 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난 후 예배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간다 -역자주). 그날 아침 예배에서 초청시간에, 나는 칠년동안 심사숙고 해 오던 결정을 내렸다. 그 때 밀려오던 해방감과 평안함은 지금 말로 이루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지난 날의 추억에 잠겨 빨랫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나를 휩싸 안았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던 말인가. 눈물이 나의 양볼을 타고 내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흐느끼며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다.

흐느끼며 감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그리고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접근하셨다. 만일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에게 손을 뻗쳐 만질 수 있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경험에 놀려 소리내어 울면서 얼마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빨래를 더 가지러 집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세탁기 앞에 서 있는 동안 그 경험은 시작될 때 처럼 빨리 끝났다. 그 경험은 온갖 감정에 의해 쫓겨나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느껴졌다.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집안으로 들어 왔을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러 내렸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만나고 계셨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여태껏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매우 색다른 체험이었다.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 체험에 대해 나는 계속 생각했다. “무슨 의미일까?” 나는 자문해 보았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 그런데 무슨 말씀일까?” 질문하기가 두려웠다.

아이들이 오후 낮잠을 잘 때 나도 쉬려고 누웠다.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

십니까?” 나는 기도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답이 없었다. 나는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답이 명백히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네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 말씀하셨더라도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신학교에 가는 일에 대해 생각을 했으나 몇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는 않았다. 첫째, 아이들이 너무 어렸다. 둘째, 대학에서 나는 무척 많은 교육과정 학과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기독교 교육 과정의 많은 분야가 이미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반복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만일 온전히 주께서 나를 감동시키셨다면 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나는 의아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었다. 그런데 또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날 나는 이 모든 일로 너무 어리둥절하여 빌(Bill)이 집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일이 뜻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삼일동안 나는 계속하여 그 체험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나는 신학교 안내서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신학과정은 참으로 흥미롭게 보였다. 급기야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론은 나를 무척이나 놀라게했다. 그것은 여성들이 정상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특별히 기혼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빌(Bill)이 무엇이

라고 말할지 참으로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나는 나의 경험을 빌(Bill)에게 말했다. “난 정말 신학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학은 내게 적합지 않아요”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나를 잠시 쳐다 보았다. “주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지도 모르지” 그는 재빨리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나는 물었다. “내가 설교자가 되려한다고 생각하겠지요?”

“아냐, 그렇게 생각지 않을거요.”

“그들이 무어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요? 걱정말아요.”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모든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 나는 계속 핑계거리를 찾았다.

“할 수 있을거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만일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거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기는 어렵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빌(Bill)은 나의 입학원서를 들고 사무실로 갔다. 그는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나는 가기로 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도 까마득했다.

사무원이 당황한 것은 당연했다.

“당신 아내가 신학을 공부하려는 것이 정말입니까?” 사무원이 물었다. “아내들은 보통 기독교 교육을 전공합니다..”

“네, 아내는 정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빌(Bill)은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입학시험을 모두 끝낸 후, 나는 어엿한 신학생으로 등록을 했다. 얼마후 학과장으로부터 나는 편지를 받았는데 입학 시험과목 중 하나의 점수가 높다는 칭찬의 글이었다. 그 편지는 남편인 윌리엄 스티븐(Mr. William H. Stephens) 앞으로 보내왔다.

첫 학기에는 오직 하룻밤만 수강을 했다. 그 과목은 기독교 교육학과 생들과 신학과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무슨 과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학기는 달랐다. 나는 헬라어를 신청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멍하게 나를 보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교실에 잘못들어 온 것이 아닌가 물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는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하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보통 나는 “몰라요, 단지 나는 이것을 해야한다고만 느끼고 있어요”하고 대답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사실, 나는 왜 그 길을 가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통하여서든지 그 훈련을 내가 사 용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신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들로부터는 얼마간의 용기를 얻었으나 친구들과 친척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거듭 거듭 그들은 나의 결단에 대한 지혜를 의심했다. 우리집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므로 내가 교사직을 하여 남편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자 그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그들은 내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암시로써 그렇게 하면 ‘나의 남편이 얼마나 수월할 것인가’로 놀려대기 시작했다. 혹은 ‘나의 남편에게 ‘아내로 직업을 갖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혼자만 일하지 않도록 조롱 하기도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참으로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고정 관념에 붙잡혀 있었다. 내가 신학 과정을 끝마치려는 것이 확 실시 되었던 마지막 학년이 되어서야 나의 노력을 신중히 대하면서, 아마 이 일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암시를 했다.

졸업시 나는 유일한 여자 신학과 졸업생이었다. 학위를 받을 때, 내일러(Naylor) 학장은 악수를 하면서, “이 모든 남자들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친절한 말에 무척이나 감사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년이 지난후 빌(Bill)은 교단 산하에 있는 출판사의 공과 교재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약 한 달 후에 그 출판사와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 출판사를 위해 글 쓰는 일을 시작했다. 주어진 일을 이끌어 가는 동안 한 편집인이 내게 주일학교의 모범적인 공과 한 과를 내게 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공과를 평가한 후에 그녀는 내게 그것이 뛰어나게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빌(Bill)이 확실히 나를 많이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변죽 울리며 말했다. 나는 남편이 그것을 읽기는 했지만 모두를 내 자신이 썼다고 말했다. 후에, 나의 주된 분야에 대한 저자들의 협의회가 있었을 때, 그 편집자는 모든 저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한 분과를 책임맡게 되었다. 그녀는 전 회원들이 모인 앞에서 나의 ‘뛰어난’ 모범 공과를 칭찬했다. 그런 후에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면서 “셜리(shirley), 빌(Bill)이 당신이 이것을 쓰는 일을 돕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아니요, 모두 나 혼자서 썼습니다.”

“그럼, 당신이 글을 쓸 때 서로 서로 돕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합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내가 미칠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문제를 거론치 않았다. 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기혼여성에 대한 그녀의 일반적인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기혼여성들도 개인으로서 각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내 세대보다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갖고있는 세대의 여성이었다.

10년이상 출판사와 비 계약 관계에서 글을 쓰며 또 편집일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사람들은 내가 신학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그들은 내가 남편과 꼭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리는 없다고 넌지시 말한다. 그러나 설교와 장례식에 관한 교과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과정을 공부했다.

나의 경험에 관하여, 두가지 사실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명하여 가라고 하신 일을 인정하기가 왜 그다지 어려웠을까? 둘째, 왜 그 영역은 내게 출입금지의 구역이었을까? 이 두가지에 대한 해답은, 신약의 여성관이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하여 적용되어 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성경은 고의는 아니었으나 잘못 취급 되어져 왔다.

근본적으로, 여성들과 남성들은 (대부분은 여성들) 여성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두가지로 취급해 왔다. 첫번째의 견해는, 아마 현재도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견해이겠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믿는다” 혹은 “나는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에게(모든 남자들에게 까지일수도 있다)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성경구절은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성경해석의 한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그 당시 가정의 머리나 복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전혀 정의해 보려고 하지 않는듯 하다. 그 당시의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것과는 매우 달랐다.

이 ‘복종’의 견해를 갖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계락을 써서 교묘하게 다루고 있다. 그들은 ‘나의 남편이 우두머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간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견해로써 그들의 견해를 도전하면 그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견해라고 재빨리 비난한다.

이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해있건 말건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성의 권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같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얼마간의 사람들은 반-바울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바울이 여성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여성을 저급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록중 어떤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실상, 여성의 문제에 관한 바울의 기록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친구들이 독신 남녀 성경반에서 근래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결론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성경반에서 디모테전서 2:9-15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원 전원은 바울이 남성 애호주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회학교 공부를 끝내고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 40대의 기혼남성들로 이루어진 한 성인반의 반원이었던 한 사람이 나에게 “바울은 남성 애호가이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여러가지 좋은 증거들이 그가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나는 답했다.

이 두가지 견해에는 몇가지의 커다란 위험이 있다. 전자는 성경을 생각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를 권장한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그저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렇게되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후자의 견해는 사실상 바울의 기록들에 대한 영감의 확실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여성에 관한 구절들이 영감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날 교훈의 가치가 없다면, 바울이 쓴 모든 기록들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적인 귀결에 도달하게 된다.

해답은 이 두 극단적인 견해의 중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역에의 참여에 대한 확고하고 성경을 기초로한 해답이 있다고 본다. 여성을 주제로 한 바울의 어떤 기록물들을 그것이 쓰여진 배경을 도외시하고 외곽적인 것만 취한다면, 그것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편파적이다. 그러나 해석의 정당한 원리들은, 그 어떤 구절들이든지 글이 쓰여진 사회적인 배경의 조명 아래서 해석되어지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먼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성경의 영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뢰가 여성에 대한 신약의 견해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체험에 대한 설명과 그 진실성이 성경속에 담겨져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경험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일에 남자와 여자의 선을 엄격하게 굽지 않으신다고 말해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의 경험은, 남자, 그가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믿을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이 해답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교리들

중의 하나인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뺀히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남자가 여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그 견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구약의 견해이다. 그러나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헌신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 직접 교제 하신다.

바울이라는 인간에 대한 나의 견해가 또한 본 연구를 하도록 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이 변화된 가장 극적인 표본으로서 그는 우뚝 서 있다. 한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방향까지도 바꿔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당대의 챔피언이 되었다.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그는 여성들을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 여겼다) 남성 애호주의라는 죄가 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신약은 여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발견하기 위하여는 표면적인 설명 이상의 것을 취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적어도 16년간의 영적인 여정의 결실이다.

제1부

여성에 대한 예수의 견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여성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철학자이긴 했으나, 기원전 4세기의 이 헬라 사람은 그의 저서 『동물의 발생』 (*Generation of Animals*)에서, 여성들은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겨나기는 했으나 기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배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기원 후 13세기 부터 16세기까지의 헬라 저술들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기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사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13세기의 신학자와 철학자로서 존경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전통적인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과 통합시켜 ‘여성은 불완전하고 천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퀴나스(Aquinas)는 중세(주후 500-1500)에 살았다. 적당하게도 그 기간은 또한 암흑시대라고 불리워 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사이의 기간 중 여성의 권리가 어느정도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발전은 확고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았다. 이 암흑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제공되었던 대부분의 교육적인 편의

는 침략자들의 영향으로 놓쳐 버렸다. 여성들에 대하여는 오직 수녀들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만이 받아들여 졌다. 자연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에서 제외되었다.

암흑시대는 과거이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옛 선조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관한 한 암흑의 시대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우리는 발전하여 십년전 까지도 불가능 했던 기회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철학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한 젊은 신부와 열두살된 나의 딸아이 사이에서 오간 대화가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대화는 가족관계에 대한 토론을 하던 교회학교 교실에서 발생되었다.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더욱 머리가 좋아요.” 교회학교 교사는 학급소녀들에게 가르쳤다. “그것이 남자들이 가족의 머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머,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캐롤(Carol)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뇨, 그것은 사실입니다. 남성들은 많은 지성이 요구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집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캐롤은 맞댔다.

“아뇨. 남성들이 더욱 우수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캐롤을 설득했다.

캐롤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성경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고 가르치는가? 예수께서는 여성을 보다 못한 성으로 여기셨는가? 여성들이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회속에서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했는가? 사실 예수께서는 가장 통찰력 있는 자들에게서만 주목을 받았던 모범을 설정하였는데 이 모범은 수 세기에서, 근

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시되어 왔었다. 복음서를 자세히 연구하면 예수께서 여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셨던 것을 보여 주는데 그 태도는 예지적인 것으로써 그 당시로는 혁명적이기까지 했다.

어떤 모범을 예수님은 세우셨는가? 여성과 관련된 그의 태도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주시려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약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새롭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그의 왕국 사역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관해 몇몇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는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을 제자와 지도자로 생각하셨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것처럼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셨다. 그는 남녀의 동등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성들을 그의 사역에 동참시킴으로 그의 교훈을 강조하셨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 여성을 재산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하셨다.

1

하나님 나라의 여성

“나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부에 남성 부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 총회 간부가 말했다.

“맞습니다.” 나의 남자 친구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는 힘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남자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의 일을 해야하는 느낌을 만들어 주지요.” 나는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화는 1955년 춘기 부흥회를 마치는 날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남자친구와 나는 초청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그는 당시 아리조나(Arizona)에서 아마 가장 탐색적인 전도자였다. 근래 같았으면, 나의 대화 의견은 같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그 총회 간부가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면, 나는 완강히 부정할 것이다. 그 당시에 나의 반응은 아이러닉했는데, 매우 유능한 여성이 내가 가르치는 부서의 청소년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는 나는 내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다.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공공연히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말했다. 또한 여성들에게 신학을 가르쳤고 여성들을 그의 제자로 삼았다. 그는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것을 명백히 밝혔다.

지도자로서의 여성들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함

5년동안, 미사꼬 에노끼는 일본의 여권운동 지도자로 있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1977년 10월 7일자 「퍼레이드」¹⁾(Parade) 지에 실려있다. 산아제한 의약품의 공적인 판매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이 운동은 급기야 ‘일본전통의 완전한 변혁’을 목적하는 데에 이르렀다. 에노끼 부인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남성 지배’ 사회가 ‘여성지배 사회’(a female-dominated society) 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정당을 만들어 열명의 국회의원 여성 후보를 출정시켰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승리하지를 못했다. 에노끼 부인은 실망하여 그 운동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한 가사일로 돌아갔다.

왜 에노끼 부인의 운동은 실패했을까? 「퍼레이드」(Parade) 기자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이 말도 해답의 일부는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명백히 있는 듯하다. 그녀는 극에서 극으로, 한 부당한 구조에서 또 하나의 부당한 구조로 옮겨 가려 했었다.

예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헌신을 강조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지도자적인 임무에서 관심과 동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 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결에서 예수님은 위의 사실을 강조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사귀다고 비난 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가지 비유를 사 용하셨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에 관한 비 유이다. 이 비유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묘사했다. 동시에 그는 그의 왕국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무 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석가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붙인 제목들은 거의 잃어버린 죄 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개의 제목들을 보면, ‘잃은 자를 되찾은 하나님 의 기쁨’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9, P.123), ‘하 나님의 사랑과 조건없는 용서’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The Interpreter's Bible*)이다. 확실히 이 세가지의 비유 모두가 하 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에 대한 그의 자애로운 관심을 표 현하고 있다. 각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 다.

잃은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영접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처음 두개의 비유는 하 나님의 찾으시는 활동상을 묘사하고 있다. 중심인물과 소유물 만 바뀔 뿐, 잃은 동전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가르침을 준다. 두 비유에서 병행하는 내 용에 주목해 보자. ‘어느 여자’ (8절)는 ‘어느 사람’ (4절, 원어 성경에 남성명사임 - 역자주) 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그들의 분실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극

히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잃은 것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분실물을 찾았을 때 두 사람은 모두 기뻐했다. 두 분실물을 되찾은 기쁨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으로 비유되고 있다 (7절, 10절).

누가복음 15장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²⁾

누가복음 15장

8.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목자는 일백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이 여인은 열 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었다. 소유한 비율로 볼 때, 여자의 분실이 남자의 분실보다 훨씬 더 컸었다. 그 은화는 로마의 데나리온에 상당하는 헬라의 드라크마였다. 그 동전들은 목걸이나 혹은 가정주부의 이마를 두르는 머리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열개의 동전은 그녀의 혼인 지참

금이며 그녀가 소유한 유일한 자신의 재산이었는데도 모른다. 하나의 동전은 일반 노동의 하루 품값에 해당되었다. 그러한 분실은 가난한 여자에게 재난이었을 것이다. 한 가정 주부의 남편이 만일 그녀를 버리거나 이혼을 결심하여 그녀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면 그녀에게는 다른 경제적인 근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분실물에 대해 매우 걱정하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혹시 그들이 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을 것이다. 목자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시작했다. 이당시의 집들은 큰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그들은 희미한 불을 켜다. 그래서 그녀는 등불을 켜야했다. 그녀는 등불을 세워두고 동전을 찾기를 바라면서 딱딱한 찰흙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등불에서 비쳐오는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는 동전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목자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 소식을 알려서 그녀의 기쁨을 나누고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했다. 예수님은 이 똑같은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결정짓도록 자신들에게 그 해답의 근원을 맡겨 두시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경험을 한 죄인이 회개했을 때의 하나님의 경험과 대비시킴으로써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셨다. 목자가 그의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목자는 축하연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축하연을 베푸신다. 그 여인이 귀한 동전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한 죄인이 회개할 때 기쁨이 있다. 그 여인은 축하연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축하연을 베푸신다. 두 비유에서, 땅위에 있는 주인의 초청에 참석한 이웃과 친구들은, 죄인의 영광스러운 개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주인

의 초청에 참석한 천사의 무리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은 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묘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경의 초보자라 하더라도 염려하고있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맘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하여 이외의 어떤 다른 해석도 제기 할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녀의 역할을 규정짓는 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역할을 다루기를 단지 거절하고 그 부분의 해석을 지나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문맥의 조명에서 볼 때 이 어떤 해석도 적용될 수 없을 것 같다. 목자는 처음 읽어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왜 그녀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가? 하나의 명백한 장애물은 그 여자의 성(性)이다. 그 사람은 여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맡긴다고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남성이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마 23:37) 암탉의 행위에 비유했다. 암탉은 여성이다.

하나님을 칭할 때 그(He)라고 계속 발음 하는데 대하여 어떤 잘못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단어의 사용이 하나님의 감정과 행동을 하나의 성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성의 역할을 초월하신다. 그는 인간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성의 역

할에 자신을 제한 시키기를 허용치 않으신다. 잃은 동전의 비유가 이점을 증명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배역으로 여성을 두셨는데, 이것은 남성을 같은 배역에 두신 것과 똑 같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의 역할이 지나쳐 졌거나 무시된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목자의 양떼는 그의 생계를 상징한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사일은 그다지 값진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비록 가사일에 대한 평가가 근년에 상승되기는 했으나 수입있는 직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요원한 세월이 필요하다. 예수님 당시에 가사일은 완전히 '여성의 일'로 규정되어 있었다. 어떠한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정 주부역에 감히 누가 하나님을 배역으로 두겠는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감히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예수님은 감히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당시 그는 아무런 물의도 일으키지 않았다. 아마 아무도 그의 주안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결혼 지참금을 찾고 있는 가정주부였지, 잃은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잃은 양과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성경해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는 그것이 다른 두개의 비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비유에 적용된 그 해석의 원리들이 적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 잃은 양과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인물들이 분석되어 각각의 행동이 적용된다. 그러나 잃은 동전의 비유는 다른 접근방법에 취하여 진다. 개개의 인물들이 해석되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이며 전반적인 교훈이 강조된다. 중심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돌

리지 않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도 상식적인 성경해석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가정주부에 대한 비유를 두개의 다른 비유 가운데에 두도록 영감을 주신 것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인에 대하여 어쩔수 없이 다루도록 하기 위하심 인지도 모른다. 가운데 있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빠뜨리는 것은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빠뜨리는 것보다 더욱 표가 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움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지도적인 역할의 배역을 맡았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잃은 자를 찾아 다녔고 그래서 찾았다. 이 비유로써 예수께서는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나라의 사역에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보이셨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와같은 요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누가복음 13:18-19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남자임-역자주)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³⁾

누가복음 13:20-21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쌍둥이 비유를 본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묘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성장의 진행이 남자의 행

위로 시작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의 진행이 여성의 행위에 의해 시작된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있는 두번째 이유도 첫번째 것과 똑같은 병행을 이루고 있다.

예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대화를 하시려고 특별한 수고를 하셨다. 그러나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남자들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구태여 여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애쓰시는가? 유대교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남자들이었다. 남자들만이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자들의 참석이 허락되어 있기는 했으나 구경꾼으로서만 참석할 수 있었다. 노련하게 예수님은 여자들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나라에서 여성들은 단지 구경꾼만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활동가들이며 개혁자들이 될 것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아래서 일을 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었다.

한 남자가 한 알의 겨자씨를 취하여 그의 정원에 심었다.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활동을 하나님나라의 성장과 비교했다. 한 여자가 세끼 분의 밀가루에 약간의 효모를 넣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그 효모가 발효하여 밀가루 반죽이 부풀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활동 역시 하나님나라의 성장을 묘사하고 있다. 모든 유대 여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들은 밀을 빵아 가루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 가루속에 누룩을 넣고 반죽한 것을 굽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참여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에 여성들도 동일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셨다.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있어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하게 참여 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여성들도,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일상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방법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나라의 성장에 비슷한 방법으로 공헌하리라는 것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그의 나라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활동 상을 두가지 모두 선택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 똑같은 비유들을 사역의 초기에 말씀하셨다 (마 13:31-33). 처음에 듣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는 그 비유들을 다시 말씀 하셨는데 물론 처음 말씀하실 때 참석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교훈이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셨음에 틀림없다.

제자로서의 여자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서 신학 공부는 여성의 한계 밖에 있었다. 유대인 랍비들은 여 제자들을 두지 않았다. 사실 유대의 구전법은, “율법을 여자들에게 말기느니 차라리 태워 버려라”¹⁾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견해를 승낙치 않으셨다. 왕국의 비전을 주기 위하여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던 것과 똑같이, 여자들과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셨는데, 세상에서 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을 여성들도 갖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성들이 만일 지성있는 인간 존재로서 용납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몸소 여성들을 지성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셨다.

여성 신학도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38-42).

예수님은 신학을 배우는 일에 마리아를 참여시켰다.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나라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하셨다. 수업은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때는 못 박히시기 일년 전 쯤이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

누가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32절) 그에게서 배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발아래 앉는’ 것은 제자, 즉 학생의 활동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 이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같은 말을 사용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할 때 자신이 저명한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의 ‘발 아래’ (행 22:3; 우리말 성경에는 ‘문하’로 의역이 되어 누가복음 1:39과는 다른 낱말로 번역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어에는, 두 곳 다 ‘발 아래’ 혹은 ‘앞에’, ‘곁에’ 라는 같은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KSV)에도 두 곳 모두 “at the feet” 로 번역되어 있음 : 역자 주) 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

람들에게 말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쳤었다.

랍비, 즉 선생 앞에 있는 학생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신학을 배우려는 자세로 여자가 앉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건방진 태도였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배우기 위하여 남자들 틈에 앉아있는 것은 확실히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의 역할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을 이상히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마리아를 완전히 편안하게 하셨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배우고자 하는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는 데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르다는 접대하기를 좋아했다. 접대시에는 그 일을 빠르게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손님들이 격찬하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쟁반들과 식탁보를 꺼내어 놓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모두가 만족할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았다. 마리아가 함께 부엌에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었을 때, 마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자신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있는 것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이 불공평 함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마르다는 화가 더욱 치밀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마리아를 부엌으로 다시 나오라고 몸짓으로 불렀는지도 모른다. 마리아를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리아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마르다를 상상할 수 없겠는가? 아마 남자들 중 몇 사람이 그것을 눈치채고 마리아의 주의를 돌리려고 애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리아의 주의를 흐트릴 수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심취하여 한마디 한마디 그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모두가 다 실패하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호소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40절) 그녀의 말에는 확실히 참기 어렵다는 뜻 이상이 내포되어 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조금전 자기를 도우면서 부엌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마리아는 마르다를 두고 떠났다. 마리아는 이미 도왔었다. 나머지 일은 마실 것을 붓는다든지 주된 요리가 다 되도록 기다리는 일 같은, 혼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각에 왜 쓸데없이 서성거리며 마르다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가 혼자 식사준비를 하도록 ‘두고’ 떠났다. 마르다는 그녀의 주된 활동 영역은 단지 부엌과 가사라고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우선 순위에 관한 말씀

완전히 정당한 듯이, 마르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수업시간을 가로막았다. 가로막는 일은 확실히 당황하도록 한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누구 누구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3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저희’가 여행 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10장에서 우리는 칠십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듣는데(17절-20절), 이들 중 얼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앉아서 공부하도록 예수님이 격려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게으름은 예수님 탓이라고 은근히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제지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

신의 의견에 동의하여 마리아를 ‘그녀가 속해있는’ 부엌으로 돌려보내시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저 탈 없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나 않을까 염려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아의 처소가 특별한 시간에 부엌이라고 말씀하시기를 거절하셨다. 대신 그는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다고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다루고 계셨다. 아마 마르다의 계획은 필요 이상의 힘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교제시간과 공부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안주인이 접대준비에 몰두해 있는 가정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맘이 편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안 주인이 모든 음식을 손 닿는 곳에 준비해 놓고 손님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즐기며 교제한다면 그 방문은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할 것이다.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일어나곤 하는 형태이었다.

마르다는 강조점을 틀린 곳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손님들의 육신적인 후생에 대한 관심은 마르다로 하여금 중요하고 필요한 무엇을 간과 하도록 했다. 물론 예수님은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단지 마르다에게 보다 중요한 어떤 다른 기회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녀의 민감한 성품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를 바르게 두었는 지도 모른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선용하기를 원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녀의 활동 목록표 중에서 제일 첫 머리에 있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이 예수님의 가르침 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세

상에서 예수님의 선교활동에 자신을 헌신적이고 뿌리깊은 참여를 하도록 발전시키는 예수님의 영적인 음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마르다의 종교는 구약의 철학이 가져다 준 행함들로 여전히 묶여져 있었으나,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에 관하여 신약적 견해로 발전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다른 일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영적으로 뒤떨어졌다. 어쨌든, 이 특별한 경험은 마르다를 일단 정지하여 생각하도록 도왔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후에 마르다는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확신을 표명했기 때문이다(요 11:24-27).

역할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또한 역할에 관해서도 무엇인가를 말했다. 마르다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녀 자신이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을, 거의 피할 수 없는 고정적인 열등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분류한 사회의 한 분신이었다.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잘 분류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남자들도 역시 마르다와 동감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불평에 답변하시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여자는 신학공부를 위해 선생 발아래 앉을 것이 없다고 확실히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쓸데 없는 일! 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만일 여자가 이해 할 수 있다고 해도 배운 것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단 말인가?

베다니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 예수님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많이 보여 주셨다. 즉, 여성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신학과 같은 깊은 학문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인 인간이다. 예수님은 오늘날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고대의 사상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성들의 육체적인 제한성 때문에 어떤 직업들은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단지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빚어진 고정된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많은 분야가 여성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경우에서도 그러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외적인 상황 이상의 것을 다루기 위해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건을 이용하셨다. 그는 올바른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할 필요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셨다.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은 영적인 진리의 배움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또 그 상황의 혁명적인 한 국면은 한 선생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고정적인 역할을 넘어 선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시인이었다. 마리아는 배우기 위해 용감하게 앉았다.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들였고 격려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진지한 제자가 될 여성의 권리를 확인하셨을 뿐 아니라 배워야 할 책임도 강조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여성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 탁월한 역할을 할 기초를 놓으셨다. 바울이 여성들을 왕국 사역의 동역자로 받아들인 동기는 확실히 예수님으로부터였을 것이다(롬 16; 빌 4:2-3). 마리아는 단순히 남자들의 뒤만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길을 잘 가도록 격려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를 배우면서 그녀는 남자들 곁에 있었다.

동반자로서의 여성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 이 평등이라는 말의 정의 중 하나일 것이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는 가치면에서 평등했다. 그러나 죄

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더 이상 동등한 가치로 대우받지 못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사람들이 다시 보도록 지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는 잘못된 것들을 옳게 하셨다. 그는 구속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혼에 관한 질문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마태복음 19장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에 관한 질문은 여자들이 물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유대사회에서 어쩔수 없는 이들의 희생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교활한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다. 그들은 질문으로써 예수님과 맞섰는데, 아마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려고 했던 것 보다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다. 예수께서는 동기를 개의치 않고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정당한 이유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가? 그분의 관습대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했으나 그 답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몇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 토론을 연장시켜 나갔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본의도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는 간접적으로 성의 평등을 다루셨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 할법한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그들은 “남자가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나?”고 물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권리는 거의 절대적으로 남자에게만 있었다. 아주 희귀하게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그 과정이 길고 오래 걸렸다.

바리새인들은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점을 묻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혼의 정당한 터전, 합법적인 터전—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르는 터전을 물었다. 모세의 법은,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할 것을 허락하고 있다 (신 24:1). 그러나 이 구절의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수치되는 일’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것의 벌거숭이’이다. 유대교에는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하는 두 부류의 중심 학파가 있었다. 삼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 이 학파의 추종자들은 한결같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라고 생각했고 오직 간음만이 이혼의 정당한 터전이라고 생각했다.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였다. 한편 힐렐학파는 예를 들어 남편의 음식을 태우는 것과 같은,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만일 아내보다 더 마음에 끌리는 여자가 나타나면, 아내는 갑자기 그녀의 남편에게 불쾌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명기 24:1에 대한 힐렐학파의 영성한 해석은 아내를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의 손길아래 두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 의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여성들을 사회가 분류해준 종속적인 역할자들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당시 사회에게 유리한 견해로서 그 상황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정에서의 남자의 확고한 지도적인 위치를 아시고, 남자들에게 하찮은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만큼 결혼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본래의 의도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다. 이론적인 색채를 띠면서 예수께서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워버리고, 질문자들에게 ‘그렇지 않았던 때’(마 19:8), 즉 아내들이 재산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식되었던 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때를 지적하셨다. 그때는 태초였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창세기 1:27절에 대해 언급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adam*)는 복수로 사용된 적이 한번도 없다. 그 말은 집합명사로서 말 뜻은 ‘인류’(mankind)이다. 인류란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단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은 육체의 닮음에 관한 것일 수 없다. 오히려 형상이란 말은 영의 닮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남성과 여성은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유 의지를 가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평등히 함께 나누어 가졌다. 1:27절의 마지막 부분을 유의하라. 이 부분은 ‘사람’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사람’을 독자가 해석하도록 그대로 두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이 남성과 여성을 가리킴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과업을 맡기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즉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이일을 책임지고 있음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돌보라는 책임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는 역할은 공동적인 책임, 즉 동반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동반자는 남녀로 이루어졌다. 두 동반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평등한 동반자 관계였다. 남성과 여성은 맡은 바 일에 각각 별개의 역할을 끼쳤지만 그 다른 점들이 그들을 불평등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다. 오히려, 각 성(性)은 각기 다른 성(性)을 보완해 주고 완전케 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해답의 두번째 요점을 위해 예수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 남자들이 그토록 많은 잘못된 생각을 발전시켜 왔던 시대 이전, 태초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갔다. 해답으로써 그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마 19:5;막10:7-8 참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라는 뜻은 남편과 아내가 목표와 희망과 꿈과 사고방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눈다. 그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의견을 같이 할 필요는 없겠으나 하나의 정신,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를 체휼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한사람이 기뻐할 때 다른 한사람도 기뻐하며,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다른 한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 그들의 모든 결정은, 함께 설정하고 함께 추구해 온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서로의 영향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어울림이 각자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장하여서도 아니된다. 두사람은 여전히 두 사람의 개성을 가진 채로 남아있다. 이 말의 최상의 뜻은,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이룩되는 것보다 함께하여 이상을 이루도록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서로 서로 최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죄가 인간의 경험속에 들어 오기전에 있었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하셨다. 불순종의 죄가 있기 이전에는, 남

자 뿐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기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래서 평등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들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평등하게 물으셨다. 그들은 둘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받았다(창 3:16-17).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았으나, 남자들과 여자들은 모든 세대를 이어오면서 계속 여자를 더욱 책망해 오고 있다. 여자에게 ‘유혹물’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혼에 관한 그들의 교훈을 위해 모세에게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신명기 24장 1절의 조항을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 신명기에 있는 그 법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양보, 즉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마 19:8)에 대한 적응이었다고 단언하셨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정은 범죄 이후에 주어졌다. 인간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를 이미 어기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세는 이 악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내서를 썼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부정되었던 아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하려고 했다.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에는, 남편에게 버려진 아내는 재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그 버려진 아내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소송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 모세의 ‘이혼증서’는 그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남편의 법적인 요구에서 그 여자를 풀어 주었다. 그 결과 두가지의 악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재혼할 수 있는 권리

를 주는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재혼할 수도 없고 살아갈 방책도 없이 버려지는 것 보다 나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한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에 맞추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허락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태초의 의도에는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매우 무책임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평등한 자유 - 평등한 책임

마가는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몇가지 말씀들을 제시했다. 예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집에서 여자가 남자를 이혼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마가는 설명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 10:12). 마태는 여자가 남편을 이혼하는 법적 조항이 없는 유대인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고, 반면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로마의 법 아래서는 남편이나 여자 어느 쪽이든지 이혼을 먼저 제기하고 진행시킬 수 있었다. 마가복음 10:11-12에서 예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자가 평등한 자유를 가졌을 때는 평등한 책임을 졌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관계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떠한 두개의 표준도 심판을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의 표준만 보셨다-태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1세기 유대인 사회의 체질때문에 어떤 작은 이유에서도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용납되었으나 그것이 이혼하는 남자가 옳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증거로서, 만일 아내가 간음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로 남편과 이혼한다면 그 여자

역시 하나님의 표준을 범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표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평등히 적용됨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성실한 짝과는 이혼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용서와 화목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남녀의 평등한 신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연한 태도로 평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상기 시켰다. 남자나 여자 할것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 남자가 여자와 상관없이 그 형상을 품고 있듯이, 여자는 남자와 상관 없이 그 형상을 품고 있다. 예수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한 몸에 대한 개념을 증언하셨을 때, 그는 평등한 두 사람의 삶의 결합을 묘사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평등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처음 얼핏 보기에, 이혼에 대한 권리는 부정적인 면으로 평등한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암시를 내포할 수 있다. 여자들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생활을 끝까지 행복하게 영위 해야할 책임을 평등하게 진다. 예수께서는 1세기의 유대인 사회에 관계하시면서, 여자들도 이혼소송에 있어 남자들과 같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를 지적하셨다. 그러한 권리와 함께 중대한 책임도 부과되었다.

주

1. Paul Raffaele, "Japan's Top Feminist Throws in the Towel," *Parade*, October 9, 1977.
2. From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Copyright © The Lockman Foundation, 1960, 1962, 1963, 1971, 1972, 1973, 1975. Used by permission. All succeeding quotations from this version are indicated by the abbreviation NASB in parentheses.
3. From *The New English Bible*, Copyright © The Delegates of the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he Syndics of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1970. Reprinted by permission. All succeeding quotations from this version are indicated by the abbreviation NEB in parentheses.
4. John Lightfoot, *Hebrew and Talmudical Exercitations Upon the Gospels, The Acts* (Oxford: University Press, 1859), p. 287.

2

예수의 지상사역과 여성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여자의 친구가 아니었으나, 누가(Luke)는 친구였다.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예수의 지상사역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위대한 감수성을 갖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여성들의 감정을 묘사했다. 누가만이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말을 기록했다(1:26-38).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송은 오직 누가에 의해서만 제시되고 있다(1:42, 46-55).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손 마른 남자에 대한 예수의 안식일 치료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등꼬부라진 여자를 안식일날 치료하신데 대하여는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다(13:10-17). 이 치료의 사건이 있는 직후, 예수님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반복하셨다(20절-21절). 역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잃은 동전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도 누가에 의해서만 기록되었다(15:5-10; 18:1-8). 예수의 사역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은, 될수 있는 한 여성들을 뒤에 숨겨 두었던 사회적인 관습의 조명속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하게 인상에 남는다.

비록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기록하고자 했던 특별한 열망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사역속에 여성들을 참여시켰는지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한 고찰을 위해 나는 사역의 세 분야, 즉 재정적인 후원과 감정적인 후원, 그리고 선포하는 일에 관계된 예들을 뽑았다.

여성들과 재정적인 후원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예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며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 하실 때에 일정하게 그와 함께 여행한 두 무리들이 있었다. 열두명의 사도들과 몇명의 여성들이었다. 누가는 세 여성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즉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수산나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이다. 이 세 여성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가는 그 이름들을 나열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 다른 많은 여성들도 있었다고 누가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누가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한 두 사람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막 15:40-41)이다. 마

가는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동안 그를 따르던 여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그의 여정에도 함께 했다고 한다. 마태도 역시 마가와 같은 이름을 기록했고, 이들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가가 그 이름을 기록한 세 여성들은 예수께 감사할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귀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셨다. 누가는 귀신들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도덕 하였다고 추측할 필요가 없다.

마가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봉사했다고 설명했다. 누가도 덧붙이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3절). 비록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의 재정적 상태는 전혀 아는 바 없으나, 요안나에 관하여는 어떤 암시를 받을 수 있다. 그녀의 남편인 구사는 헤롯왕궁에서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한 위치에서는 수입이 많았을 것이다. 그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안나와, 아마 모든 여인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그 재산을 쓰고 싶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여행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정에서 주는 안락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것은 인상적이다. 따르는 남녀의 큰 무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있는 광경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사역에 여자들을 동참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나, 그는 그 위험을 택하기를 원하셨다. 그는 자신의 행

동으로 온갖 종류의 거짓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자유로운 도덕적인 태도가 널리 퍼져있는 현대 세계 속에서도, 남녀가 함께하는 그러한 여행은 사람들에게 비평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여행한 여자들에 관하여 예수님이나 그의 추종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짓 고소나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만일 그러한 헛 소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그의 동료들에게 부도덕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러한 일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과 그의 추종자들의 행동은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잘못된 무엇이 있었다는 암시조차도 하지 않았다.

현명하게도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일상적인 사회적인 집회와 아주 동떨어진 집회를 갖지는 않았다. 비록 중대한 진보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여자들은 별개의 그룹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눅 8:3; 행 1:14), 그들은 여자들만의 그룹을 지어 여행했을 것이다.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성들을 그와 가까이 있는 열두명의 그룹 가운데 넣지는 아니했으나 그들은 별개의 그룹으로 여행하는 무리 가운데 포함시킬 수는 있었다. 그러한 배려에도 모험은 따랐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 오늘날의 열광주의자들보다 천천히 일을 진행시켰으나, 그의 추종자들을 도전하는 일과 멀리하는 일에 균형을 취하셨다. 그 결과 여성들의 공헌에 주의를 모으게 하는 일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는 여성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 했는지 전혀 듣는 바가 없으나 그들이 열두 사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해 서로 나누었다. 베다니의 마리아 처럼, 여성들

은 예수에게서 배웠다. 부활 이후의 사건은,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예수를 따랐던 남자들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는 이 여성들의 그룹을 가르치셨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한다. 누가는, 무덤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 겠다고 가르치셨던 사실을 기억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눅 24:8). 이것은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을 때 하신 말씀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행동을 통하여, 여성들이 그의 공적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원하고 계심을 가르치셨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는 여성들의 재능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셨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대에 널리 퍼져있던 여성에 대한 나쁜 편견을 초월하셨다. 여성들이 초대 교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수께서는 여성들을 그의 공적인 사역에 일찍부터 포함시킴으로써 기초를 놓으셨던 것이다.

여성들과 감정적인 지원

예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이 있는 장소를 사람들을 속이는 곳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다. 그는 그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족의 슬픔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배가 고팠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저항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 그렇다. 예수께서는 육체적, 지적, 정적 필요를 모두 갖고 계셨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의 필요를

공급했다. 그가 친구들의 필요를 공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공급한 한 친구는 베다니의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요 12:3-8).

사랑의 선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일 전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를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요한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첨부해서 설명하고 있다(마 26:6;막 14:3). 예수의 특별한 친구-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다. 세 복음서의 기자들이 쓴 내용이 무척 비슷하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쓰고 있음이 틀림없다.

마르다는 식탁에 둘러 비스듬이 기대어 앉은(유대인들이 식사때 앉는 자세-역자주) 남자들의 식사를 돌보고 있었다. 마르다가 식탁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비싸고 향기가 나는 기름이 든 석고 향아리를 들고 예수께로 가까이 갔다.

기름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일년 품삯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값비싼 것이었다.

마리아는 그릇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막 14:3). 그녀는 이 그릇속에 들어 있는 전 내용물을 사랑의 선물로 예수께 드렸다. 그릇을 깨뜨린 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장사를 위해 시체에 기름을 바를 때 기름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관습이었다.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후, 마리아는 그의 발에 기름 얼마를 부어 문질렀다. 분주한 하루 마지막 시간의 향유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날 낮동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권위에 도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서로 앙숙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합세하여 세금 내는 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다 (눅 20:20-26).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했다 (눅 20:27-40). 한가지 한가지의 도전마다 대답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일련의 화를 선포하고 공공연히 그들을 비난하셨다¹⁾(마 23:1-39). 적합하게도 그날은 ‘논쟁의 날’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확실히, 마리아의 사랑어린 행동은 예수의 기분을 가볍게 하고 그의 짐을 덜어 주는 일에 기여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녀의 머리를 묶고 있던 머리 수건을 벗었다. 머리다발이 어깨로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머리를 떨구었다. 그녀는 예수의 발을 적시고 남은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 그녀의 머리털을 사용했다. 마리아는 얼마나 큰 모험을 했는가! 품위있는 여성들은 오직 가족들 앞에서만 머리를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어린 행동은 그녀의 명예를 위태롭게 했다. 이보다 더 이른 예수의 사역기간 중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

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머리털을 묶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았던 죄있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마리아는 죄있는 여자라는 취급을 받을 모험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특별한 시간에 사회적인 행동규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재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에 의해 지불될 어떤 희생에도 관심이 없었다. 대신에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주요 교사인 그분을 돌보는 일에만 온전히 심취되어 있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만찬을 갖기 몇달 전, 마리아는 예수의 발앞에 앉아 그의 사명에 대해서 배웠으며 그의 제자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녀는 봉사에 대해 배웠었다. 이 순간에 마리아는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에 그분을 봉사하기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예수의 가르침들을 삶에 적용시켰다. 즉 그녀는 깊은 필요속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봉사했던 것이다.

저를 가만 두어라

그 기름의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갑자기 모든 손님들이 마리아의 친절한 행동에 놀랐다. 그들 모두는 그 기름이 매우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모자인 유다와 함께 몇몇 제자들은 어떤 것을 매우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마리아의 분별력을 의심했다. 유다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선물할 수 있도록 기름을 팔기를 원했다. 요한은, 유다가 그 판 돈을 그들의 공동 재정에 넣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을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

심이 없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예수께 무례한 것이었다. 열두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최소한 일년 반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수와 함께 여행했었다. 그러나 그때 까지도 그들은 예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사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듣고 배웠는데, 그 사명을 희미하게나마 알아차리고 있었었다. 예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를 사랑하며 영민한 제자를 옹호하셨다.

“저를 가만 두어라”고 예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는 마리아를 옹호하는 두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의 장사를 위해 기름을 발랐다. 요한의 말에 덧붙여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그의 장사를 위한 준비로 간주하셨음을 확실히 했다 (마 26:12; 막 14:8). 예수의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 역시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최종적인 순간까지도 열두 사도들은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부활 이후까지도 제자 중 몇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의 왕좌에 앉을 것인지를 물었다(행 1:6). 그들은 예수의 왕국에 대한 영적 차원을 잇고 있었다. 자신이 고난과 죽음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예수의 말을 마리아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녀의 행동이 그녀가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자들중 몇사람들이 둘러 앉아 누가 나라의 ‘부통령’ 이 되며 ‘비서 실장’ 이 될것인지 왈가왈부 하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마리아가 예수께 기름을 바른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은 완전히 무의식적이었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의 장사시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를 목적으로 특별히 그 기름을 샀다고 추측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예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주장한다. 논쟁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마리아는 예수의 장사시그의 몸에 기름을 바를 목적으로 특별히 그 기름을 산 것 같지는 않다. 예수의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해명하였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마리아는 기회가 생기자 기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다. 예수께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나사로가 소생함을 받은 데 대한 그간의 감정적인 경험과, 그리고 예수께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음 날 입성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께 기름을 붓도록 감동시켰다. 신자들이 마음의 충동에 의해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행동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극하신 것으로 그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이론적인 근거는 성경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즉 본문의 가장 명백한 내용을 취해야 하는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만일 감송향(그 기름의 향이름 - 역자주)이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향이라면, 마리아는 확실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만일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께 기름을 부었다면, 학자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통찰력에 갈채를 보냈을 것이며, 그 행동을 단지 막역한 사랑의 표현으로만 보지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하나의 무의식적인 동작 이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자들을 수정하신 그의 “저를 가만 두어라”라는 말의 현대적인 표현은 “그녀를 짊어 내리지 말라”는 말과 상응한다. 그녀가 행한 행동은 너무 중요하여 그 진가를 떨어뜨릴 수 없었다. 그

래서 그녀가 행한 일은 그녀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다. 예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그 가 이땅에 온 목적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었던 때에, 오직 한 여성만이 그것을 이해하여 그를 봉사했던 것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인가. 아마도 이것이 예수께서 그녀의 ‘낭비’를 재빨리 변호하신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참된 뜻을 남자들은 채 마음에 두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베다니의 이 헌신된 제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도록 격려되거나 기대될 수 없었던 사회에서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서, 마리아는 모든 진리중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여성과 선포

여자 백명의 증언은 남자 한 사람의 증언보다 못한 것이 유대인의 구전법(oral law)이었다. 일세기의 사회에서, 여성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주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증거는 법정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배심원으로서도 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세가 편만해 있는 사회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 라는 소식을 전파할 사마리아의 첫번 타자로 여성을 선택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왜 부활 이후 여성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까? 왜 그는 그 엄청난 사건의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첫번째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

놀라게 만든 요청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 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니라” (요 4:7-10).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의 초창기에 사마리아 여성을 만났다. 꽤 많은 추종자들을 두고 있던 침례요한의 지지를 갖고 예수께서는 훌륭한 출발을 하셨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도력을 위협하는 어떠한 운동도 감시하고 있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유대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갈릴리로 갈 것을 결심하셨다(요 4:1-3).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팽팽한 적대감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을 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역사의 초창기에 그들의 땅을 침략한 외국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의에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보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피하려고 했다. 그랬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직접 갈릴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보통 그 길을 피하여 갔다. 대신 그들은 동쪽으로 돌아 베레아를 경유하여 갈릴리로 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편견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갈릴리로 가는 동안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보다 가까운 길을 택하셨다.

갈릴리로 가는 도중,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 우물은 수가라 하는 마을 가까이 있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마을로 계속 들어갔다. 때는 정오, 물을 길기 위해 사람들이 올 만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여자 한 사람이 매일 쓸 물을 길기 위해 우물로 왔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덕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후보자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여자는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혼자 우물에 왔는지 모른다. 여성들은 그런 허드렛 일은 여럿이 모여 하기를 더 좋아했고, 지혜롭게 보다 시원할 때 그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가 우물에 온 시간이나 친구들이 없었던 것은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 여자는 다섯명의 남편을 거쳤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다. 확실히 그 여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여자들의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었다.

확실히 예수께서는 그 여자보다 조금 빨리 우물에 도착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으나 예수는 우물에서 물을 길을 그릇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릇을 갖고 우물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물 한 그릇을 요청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께서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한 인간을 보았을 뿐이었다.

예수의 외모나 태도가 그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지 않았다 해도 목소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여자는 그가 유대인인것을 알았다. 미국에서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지에도 지방마다 억양이 달랐다. 예수께서 심문을 받고 계시는동안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숨기려 했을 때, 그를 노출시킨 것은 그의 갈릴리 억양이었다(마 26:73; 막 14:70).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갈릴리 억양을 가졌을 것이다.

“물을 좀 주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요청했다. 그 요청은 그녀를 놀라게 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물을 요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요청의 의미는 그 여자가 물을 길기 위해 가져온 그릇으로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여자는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그릇에 입술을 대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유대인일까고 의아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사회적인 금기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그릇으로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편견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적인 규례였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관하여 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편견이 계속되도록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후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움으로 응수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셨다. 그는 여자에게 말을 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

을 피할 뿐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도덕으로 간주되었다. 엄격한 유대의 랍비는 여자와는 공공연히 말하려 하지 않았는데, 길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도 그랬다. 왜냐하면 구전법에 “아무도 길에서 여자와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말게하라”²⁾고 쓰여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이상한 유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며, 마치 남자에게 말하듯이 자유롭게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척 이상했다.

계획된 만남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요청에 대한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은 놀랄 것이 없다. 편견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의 요청을 친절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는 상관치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화를 진행시켰다. 예수의 접근속에는, 마음 속에 확실한 목표를 갖고 계획된 만남을 하고 있다는 징표로 가득차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단지 우물 물을 요청했으나, 만일 그 여자가 예수께 물을 요청했다면, 예수께서는 생수를 그 여자에게 주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대화의 방향을 물리적인 관심거리에서 영적인 관심거리로 천천히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여인은 오직 물리적인 견지에서만 예수의 말을 이해했다.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만남이 기억난다. 이 여자처럼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했을 때 물리적인 실체를 연상했었다.

한걸음 한걸음씩,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물리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의식적인 깨달음이 없었다. 이 특별한 순간에 그 여자는, 물건을 매일의 일과에서 벗어날 길을 추구했다. 더이상 무거운 그릇을 자기 집에까지 운반하고 싶지 않았으며 더이상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 정죄의 눈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는 이 사람이 특별한 물로써 그가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생각 수준에 자신을 맞추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15절). 그 여자는 자신의 열망을 억누르기 어려워 이렇게 요청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16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알고 계심을 나타내자 그 여자는 예수가 비상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는 이 여자가 다섯명의 옛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여자는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꾸었다. 아마도 자신의 죄 많은 삶에 대한 관심을 없애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 여자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원전 128년에 그들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까지도 계속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드릴 최고 좋은 장소라고 주장했다.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는 예배하는 방법만큼 중요치 않다고 선언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여자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들을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확실히, 그 여자는 메시아에게서 들으시라고 기대하고 있는 진리를 예수께서 말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생수로 인도했다. 이제는 그 여자에게 그

생수를 마시라고 요청한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26절), 예수는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생수, 영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퍼즐조각들을 맞추어야 했다. - 예수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가장 즐거웠던 어떤 꿈속에서도 자신이 메시아 앞에서 있는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었으며,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라는 말을 그에게서 들으리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여자가 그 소식을 들은 첫번째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더구나 죄 많은 여자가!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혀 나타내시지 아니했던 것을 이 외로운 여자에게 매우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예수께서는 여성을 선택하여 왕국의 기쁜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첫번째 사람으로 삼고 그 일을 위임했다.

심부름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었다.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이 초창기에,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여태껏 한번도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대화의 주제가 신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는가! 여자와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여자와 신학을 토론 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랍비도 그런 사회적인 부도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랍비도 그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식을 전파함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요 4:39). 큰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차서 그 여자는 마을로 달려갔다. 그 여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소식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다. 예수와의 만남으로서, 그 여자는 자신을 누르고 있던 과거의 죄많은 삶의 어떤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보는 사람마다 붙들었다. 그 여자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만나보도록 초청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29절).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하도록 초청하면서, 그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 여자의 질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자는 사람들이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마을을 다니면서 그 여자는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간증때문에 믿게 되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소개되었고 그들 자신이 보고 듣기를 원했다. 이 일 후에 그들은 믿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말씀의 모든 면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과 삶을 감동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만남은 그 여자로 하여금 타인들에게 나아가도록 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는 멀리까지 전파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불성실한 여인일지라도 신뢰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전파하도록 하셨다. 그 여자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장소에 그 때에 있었던 최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신뢰하셨다. 그 여자는 예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예수를 만났던 그 여자의 '기회'와 그 여자의 왕국에 관한 선포는 미래의 사마리아 복음전도를 위해 기초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활을 선포함

사마리아 여성이 메시아의 도래를 자신의 나라에 선포하기 위한 첫번째 사람으로 선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첫번째 사람으로 역시 여성들을 선택하셨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치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이에게 고하니(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라”(눅 23:55-24:11).

예수의 위대한 갈릴리 사역에 동참했던 여성들의 열마는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계속 그를 따라갔다(마 27:55-56; 막 15:41).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여성들이 이 충성스러운 헌신에 모두 주의를 모으고 있다. 이 세사람 모두가 다 그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했었다고 진술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거의 시작될 때 십자가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장사를 위해 그의 시체를 잘 준비시킬 시간이 없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둘러 시체에 약간의 향료를 뿌리고 세마포로 시체를 감쌌다. 장사를 위해 시체를 준비하는데 있어 취해져야 할 일반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했다. 여자들은 모든 진행과정을 지켜보았었다. 여자들은 시체가 잘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시체가 놓여지는 장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아마 무덤 안에까지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 다시 무덤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합당하게 장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확실히 절망하여, 그곳을 떠났으나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었다. 어쨌든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남자가 눕혀둔 그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들이 무덤안에 들어와서 보았던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시체는 그곳에 없었던 것이다! 예수가 있던 곳에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영원한 소식을 나누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눅 24:6).

비록 예수께서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리라고 말씀 하셨어도, 그 뜻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여자들은 그 예언을 들었었다. 천사들이 한 말“‘너희’ (저자의 표시)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6절)를 주의하라.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남자들에게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말씀하셨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의 말씀을 상기시키자,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났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기회’ 처럼 무덤에 있던 여자들이 천사들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신실한 여자들에게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첫번째의 사람이 되는 명예가 부여 되었다. 그들의 용기와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어린 열망은 상급을 받을만 했다.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마 28:7).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 소식을 예수께서 가장 필요로 했던 때에 예수를 버린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가져가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여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급히 가서 모든 것을 말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한번 이상을 ‘말했던’

점에 유의하라(눅 24:9-10). 두 개의 다른 동사가 모두 다 다른 시제로 ‘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우리말 성경에는 ‘고하다’라는 말로 한 가지의 단어만으로 번역되어 있음-역자주). 첫번째의 ‘말하다’는 뜻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완전한 행동을 알리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한번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두 번째의 ‘말하다’는 뜻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한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해 계속해서 말했다.

그 여자들은 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소식을 계속해서 말할까? 확실히 그 사건에 관한 흥분이 그 소식을 계속해서 말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여자들의 얼굴을 의심스럽게 보는데 대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 계속해서 남자들을 확신시키려 했을 것이다. 누가는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허탄한 이야기’ (11절)로, 여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으로 간주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제자들이 의심한데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이 말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여자들은 이 남자들과 함께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 참여했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도와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신뢰하여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택했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란 믿을 수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후에 그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보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막 16:14). 1세기의 사회가 여자들의 증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나, 예수께서는 여

자들을 천국복음의 책임있는 증거자로, 영향력있는 선도자로 인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자들이 그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 사역의 초기부터 그는 여자들을 만나 그의 일에 참여시켰다. 여자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함께 나누셨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 왕국 사역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남자들과 여자들은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예수께서는 일등 시민으로서의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셨다.

주

1. A. T. 로버트슨, 도한호 역, 「복음서 대조서」(서울:요단출판사, 1978), p. 193-194.
2. John Lightfoot.

제2부

여성에 대한 사도들의 견해

1972년 나는 「백성」이라는 잡지의 부록 기사로 ‘여성 해방, 성경은 지지하는가?’ 라는 글을 썼었다. 그 논설을 쓰기 위해 연구하는 동안 나는 커다란 놀라움을 경험했다. 무척 많은 옛날 학자들이 여성은 평등하다고 단정을 했고 바울은 여성들을 격하시키지 않았으며 더구나 초대교회에 여자집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뛰어난 남 침례교의 헬라이어 학자인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뵈뵈(롬 16:1)를 여자 집사로 간주했다(*Word Pictures*). 100년 전 헨리 알포드(Henry Alford) 역시 뵈뵈는 고린도의 항구도시 켄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고 생각했다. 렌스키(R. C. H. Lenski)와 필립스(J. B. Phillips)도 둘 다 뵈뵈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집사로 번역했다.

여자에 관한 바울의 글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같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는 놀랐다. 바울이 제시한 남녀 평등이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았는지 나는 의아했다. 그리고 다른 놀라움들도 역시 경험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붙어 다니는 칭호가 불공정하다는 인상이 깊었다. 근년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남성 애호주의자라고 칭하여 왔

으나 오히려 그는 따뜻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사역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더욱 확신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가치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여성들을 하락시키는 듯이 보이는 그의 말에 의해(고전 11:3-9; 14: 33-35; 엡 5:22-24; 딤후전 2:11-14) 빛을 잃어 왔다.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구절들이 무시되어 왔다고 나는 느꼈다. 로마서 16장과 빌립보서 4:2-3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에 대한 그의 칭송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부정적인 구절로 보이는 듯한 고린도전서 11장11절에 이어,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는데 대해 누가 주목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긍정적인 말이다. 에베소서 5:25-31절에 있는 남편에 대한 교훈을 어느 누가 같은 장의 22-24절에 있는 아내에 대한 교훈만큼 주의를 기울였는가? 바울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그를 불공평하게 대우해 왔다. 우리는 그의 인격묘사를 부정확하게 창조해 왔다.

바울의 부정적인 말에 빛을 비추는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1)역사적인 배경과 (2)바울의 우선적인 목표이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볼 때, 바울의 교훈은 그당시의 사람들이 매우 훌륭한 판단력을 갖도록 해준다. 어떤 경우에는 그는 단지 어떤 특별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들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했다.

바울의 중요한 우선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

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리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 전서 9:19-23에서 바울은 왜 그가 자신의 삶의 형태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22절) 이 되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적응한다고 말했다(23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상하게 하는 어떤 일도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처럼 여성의 자유를 제한 했을 때에도, 그는 교회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정한 마음이 있었다.

역사적인 배경과 바울의 총체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그의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것이 된다. 게다가 부정적인 듯이 보이는 바울의 말에 기울이는 주의 만큼, 명백하게 긍정적인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긍정적인 것이 승리한다. 보편적으로 변함없는 평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갈라디아서 3:28 하나만으로서도 모든 부정적인 것을 물리친다.

신약의 여성관은 확실히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기록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1-7에 있는 베드로의 교훈 역시 확실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많은 구절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왔는데 최소한 그 곳에서는 초대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수많은 참고 자료들이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여 선지자들과, 여 집사와 여교사와 가정을 예배처로 개방한 여성들을 발견한다. 오순절의 사건 자체가 신약시대의 최초부터 존재해 온 성의 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예수께서 놓으신 기초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함께 일했다.

3

신약성서가 제시하는 가정의 여성

“나는 남편이 가족의 머리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어요.” 한 중년 여성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우리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가족 관계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주제로 모인 영적수련회에서 막 돌아 왔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편과 나는 웃었다.

길을 가면서 빌(Bill)은 내 귀에 대고 “아무도 여자가 해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구려”라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에 동의 했다. “그러나 매우 훌륭하고 성경적인 듯 해요!”

그 여자의 말은 에베소서 5:23절의 전통적인 해석에 관해 나를 항상 괴롭혀 오던 무엇인가를 상징했다. 그것은 여성들을 부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몰아왔다. 많은 아내들이 그 해석에 대해 입술로는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혁신적인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남편의 머리 역할을 다시 확고하게 한다. 그 여자는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발휘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만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얻지 못한다. 바울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가

르칠 때, 그러한 결과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불행히도, 바울의 글은 일방적인 복종만을 믿는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명령에 맞추어 오로지 순종한다. 에베소서 5:21-31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 양편 모두에게 상호간 서로 복종하라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복종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21-33).

상호 복종의 요구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22절일 것이다. 그러나 복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21절이 설명하고 있다. 문법적으로 21절은 두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즉 21절은 전이적인 문장이며, 연관된 주어를 이끌어 들인다. 전이적인 용법으로서, 이 구절은 예배에 관련된 교회 토론이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18-20 절에서 바울은 예배시의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네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 즉, 말하기(우리말 성경에는 ‘화답’으로 되어있음 - 역자주)와 노래하기와 감사하기와 복종하기이다. 이 네번째의 분사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제는 교회의 내외적인 관계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 있다.

비록 어떤 주석가들은 21절은 그 앞에 있는 구절들과만 관련지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21절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보는 데는 훌륭한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한 가지로서는, 예배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생각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21절에 있는 처음 세개의 분사는 예배시에 발생하는 행위적인 요소에 관한 말이다. 시와 찬송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교훈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한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함께 수행해온 그들의 과업을 격려하며 서로 서로 말한다. 세번째 요소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배경험의 모든 요소에 있어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은 상호간에 복종하는 정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바울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 복종의 요구를 적용했다. 이 적용은 21절과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는데 대한 두번째의 증거가 된다. 그 증거는 문법적인 것이다. 헬라어 성경 본문 22절에는 동사가 없다. 영어 번역본에 나타난 동사 ‘복종’은 21절의 분사 ‘자신을 복종시키기’에서 빌려온 것이다. 동사를 빌려오지 않는다면 22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질 수 밖에 없다: “아내들이여, 당신들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듯” 동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들이여, 당신들의 남편들에게 무엇을?” 동사가 없이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과 문맥은 22절이 21절과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 복종은 바울이 교회당 밖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원했던 예배 경험의 한 기본 요소였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22절은 상호 복종에 관계되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첫번째 요점이 된다. 21절을 기본 전제, 혹은 작용 원리로 하고, 에베소서 5:21-31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A. 상호 복종의 요구(21절)

1. 아내들의 책임(22-24절)

- a. 교회가 그리스도께 갖는 관계와 같은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
- b. 모든 일에 복종할 것.
- c. 주 안에서 복종할 것.

2. 남편들의 책임(25-31절)

- a.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할 것.

b.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

II. 상호 복종에 대한 요약(32-33절)

21절이 그다음 것과 분명히 연결된다는 세번째 증거는 상술한 개요에서 보여지는 문단의 구조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여기서 오늘날 까지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고대의 문학 형식을 사용했다. 한 주석가는 그 기교를 인클루시오(inclusio)라고 부른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바울은 보다 큰 토론의 특별한 한 부분을 21절로 시작해 33절로 끝을 맺는다. 21절은 상호 복종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포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게 유추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적용함으로써 그 개념을 확장 시킨다. 그런후 33절은 상호 복종의 개념과 관계된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책임을 인용하면서 그 토론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다른 사회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보다 큰 토론 속에서 열 세 구절을 하나의 통일된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

21절과 33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두 구절이 더 깊은 조화를 이루게 한다. 33절에서 사랑해야 할 남편의 책임이 명령으로 다시 설명되어 있는 한편, 아내의 복종이 자원적인 행동으로서 다시 표현되고 있다. 게다가 21절에 있는 ‘경외함으로’라고 번역된 어귀는 하나의 전치사와 헬라이어 ‘포베오’(Phobeo)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합하여진 것이다. 33절에서 ‘경외하라’고 번역된 말도 ‘포베오’라는 동사형을 번역한 것이다. 이 두개의 관계되는 낱말을 사용한 것은 21절과 33절의 구조속에 있는 토론 내용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또 하나의 의도적인 시도인 듯하다. ‘포베오’의 두번째 사용은, 전체의 토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신자의 헌신이라는 배경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재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남편-아내의 유추를 시작하고 결론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회 유추에 대한 탐색

확실히 바울은 이 문단 속에서 교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무엇을 말했다. 그러나 이 문단의 근본적인 주제는 역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다. 여기서 바울의 주된 목적은 남편과 아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유추는, 이상적인 결혼의 연합을 묘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남편들과 아내들이 달성하라고 도전하시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용된 하나의 전달 수단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비유함으로써 바울은 결혼에 대한 최고의 가능성을 이룩해 놓았다.

그 유추 속에서 바울은 네가지의 주된 요점을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비교했다. 첫째, 그는 가족 가운데서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가족의 머리이다. 둘째,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구속함을 받은 그의 몸이 그의 뜻에 복종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다. 오히려 복종에 대한 사랑어린 요구이며, 그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신뢰에 기초되어 있는 복종이다. 남편 역시 아내로부터 복종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그의 기대는 25-31절에서 그에게 주어진 교훈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 조절되며 한 계가 주어진다. 아내의 복종 역시 자원적인 것이다. 셋째,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이미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듯이 그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형이다. 그는 교회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남편은 그 모형을 본받아 그와 같은 수준에서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있다. 네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시기를 계속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시기 위해 그의 몸의 소원을 듣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 남편 역시 자신 뿐 아니라 아내의 삶 속에서 자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순수한 열망을 갖고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

나아가 바울은 예수의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복종의 원리를 명백히 제시했다. 그리고서 그는 한 육체가 되는 데 대해서 한 가지 더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이 비밀이 크다’ (32절) 고 그는 강조했다. 그 개념이 너무 커서 오직 영적인 조명으로만이 그 참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그 개념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연관시켰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맥 안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은 생활과 생각이 철저히 얽혀져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얽힘은 보다 힘센 것에서 힘을 받는 관계이지만, 복종함을 받는 쪽의 기술을 복종하는 쪽이 철저히 발전시키고 사용한다. 이와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생활과 사색의 얽힘이 있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충족적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여자에게서 힘을 받으며, 이와 똑같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힘을 받는다. 교회는(이처럼 아내도) 그의 모든 측면을 사용할 것이 기대되며 이렇게 될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설정하신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결혼의 이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유추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신과 목적에 있어 하나인 것과 똑같이 남편과

아내는 정신과 목적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이상을 잃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교라는 것을 잊어서도 아니된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유추할 때 이 모든 유추들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 또한 완전하지 않다. 비교가 실제 자체가 아닌 주된 한가지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남자인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 바울이 유추를 할 때 그 안에서 한가지 차이점을 지적했다. 즉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시다. 그러나 남자는 아니다. 인간인 남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동등해질 수 없다. 그러나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받고 있다. 이 문단에서 남자는 특별히 그의 아내를 향한 자세와 아내를 대우할 때 그리스도처럼 할 것을 도전받고 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남편도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내는 그가 그 목표를 향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남편 자신의 헌신을 통해 그 다음 차례로 아내도 같은 목표를 향하도록 아내를 도와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아내를 욕박지르는 남편은, 인간인 아내의 필요에 귀머거리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한 복종의 종류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구속적인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을 깊이 존경하기 위하여 부부가 어느 한쪽이라도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결혼생활을 만들어 내는 원리이다.

이 유추는 기대할 수 있는 결혼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비교는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나 혹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와 노예는 복종할 것이 명령되고 있으나, 아내는 자원하여 복종할 것이 권면되어 있다. 교회는 강압에 못이겨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확신 때문에 복종한다. 이처럼 아내도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확신할 때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 자원적인 복종의 개념은 1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대한 요구와는 다르다.

복종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에 관한 유추로서 남편은 가족의 머리이며 아내는 그 머리에 자원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과 적용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복종(submission)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1세기에서의 복종이란 거의가 근본적으로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노예들에 대해 계획된 일방적인 일이었다. 노예는 그의 주인에게 복종(obey)했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복종(obey)했으며 아내들은 남편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submit)했다. 비록 결혼에 대한 몇가지의 규례들이 여성들의 억눌린 상태를 가볍게 해 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기는 했으나, 아내들은 여전히 남편들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법과 관습에 따라,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최후의 결정권을 가졌었다. 물론, 복종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복종(submission)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일

반적으로 우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복종(obe-dience)이라는 관계로 간주한다. 어떠한 사업체에도 권위의 질서가 있다. 주식회사 사장은 그의 수하에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감독은 그의 아래있는 사람들이 그가 수행해야할 정책을 진척시킬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일은 계속된다. 물론 사업체마다 질서와 목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전부가 나쁜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종류의 모형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된 사람들에게 말했다. 교회의 교제속에 있는 그들의 위치는 다양했으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인간으로써 그들은 여전히 동등했다.

그렇다면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 (21절)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약헬라어-영어사전』(*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에서 안드트(Arndt)와 진그리치(Gingrich)는 ‘복종하라’고 번역된 말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속시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사랑으로 자원하여 굴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현대 사전에서 ‘굴복’이라는 말은 복종(submit)에 대한 동의어로 되어 있다. 21절에 있는 헬라어 동사 형태는 자원적인 복종(submission) 혹은 굴복(yielding)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차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해서 굴복할 것을 경고했다. 복종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어야 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생활과 사역에서 종의 모형을 명백하게 설정해 놓으셨다. 말씀과 행동으로서 그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막 10:45).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가운데서 서로를 섬김으로 그의 모범을 따라

야 한다. 자원적인 복종은 사랑어린 봉사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의 관계속에서 서로 복종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봉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피차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리를 위한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 사랑은 또한 모든 교인들 편에서 주고받는 정신이 요구된다. 때때로 교인들은 교회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책이나 절차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양보가 있어야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의 뜻을 준행코저하는 결의를 기초로 하여 타협해야 한다.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각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따라 피차 굴복할 수 있다. 복종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피차에 대한 사랑에 확고히 기초한 것이었다. 그것은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세상적인 모형의 복종이 아니었다. 관계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바울은 일방적인 복종을 찬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다. 이 교훈을 양편 서로의 관계에 적용했다.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피차 복종할것을 경고했을 때, 그는 아주 이상한,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개념을 공포했다. 누가 그 개념이 기록되리라고 상상하였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기록되리라고 생각했다.

바울은 상호복종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피차 복종하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서 그는 이 교훈을 특별히 그당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던 기본적인 세가지의 관계에 적용했다.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그것이다. 21절은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의 교훈을 위해 참고할 요점이며 소개 말이다. 바울이 상호 복종의 필요를 특별히 적용할 때, 그는 먼저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 말했다.

남편의 책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문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22절이다. 보통 그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라고 짤막하게 인용된다. 오늘날 이 구절은 여자가 약간 으시댈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놀리는 듯한 태도로서 종종 인용된다. 그러나 25절의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시오’라는 구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본 문단에서 22절과 꼭 같이 중요한 부분이다. 참으로 본 문단은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했던 견해속으로 바울을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잘못 사용되어 왔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잘못된 강조를 하게된 한가지 이유는 22절-24절에 있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많은 한편, 25절과 그 다음에 진술하고 있는 남편의 책임에 대하여는 입에 발린 말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신명기 24:1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 이기심과 같은 형태의 존재 때문인데, 그 잘못된 해석은 아내를 어떤 하잘것 없는 잘못 때문에 이혼을 하곤 했던 무책임한 남편의 어쩔수 없는 희생물이 되도록 했다. 바울은 그러한 편협한 강조를 찬성하지 않으리라 나는 믿고 있다. 사실 이 문단에서 바

육은 아내의 책임에 대한 것보다 남편의 책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사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남편이 원하지 않고는 아내의 복종은 수행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아내의 자원적인 복종은 남편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시범을 보이는 배경 가운데서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남편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살펴 보고자 한다.

25절부터 바울은 남편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다.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세가지 말이 있는데 아가페와 필로스와 에로스이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며 필로스는 형제적인 사랑이며 에로스는 감각적인 사랑이다. 바울은 이 명령에서 남편들에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했다. 아가페는 사람을 감동시켜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최선을 추구하는 사랑의 형태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 그의 원수들까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까지 가셨을 때 나타내 주신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생을 갖도록 하기위해 사람들을 깊이 돌보아서 그의 생명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기를 원하셨다 (요 10:10).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표현하기를 기대하시는 종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바울은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라고 도전했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 최고의 사랑으

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1세기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아내에게서 박탈하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최선의 자신이 되도록 발전하게 도와주는 사랑의 형태였다. 그것은 법이 남자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에도 아내가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그런 복종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사랑의 형태였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의 관계가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복지를 깊이 돌보시듯 아내의 복지를 깊이 돌보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여 그녀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아내의 복지가 자신의 복지보다 우선해야 한다. 가족의 머리로서 남편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관심과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신 것 처럼. 얼마나 높고 고매한 도전인가!

불행스럽게도 많은 남편들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데 있어 실패하고 있다.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이 실패를 극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헬라어 시간에 내 곁에 앉은 한 남학생이 내게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하루종일 일했다.

“아내는 내가 그저 재미로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알겠지요.”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동의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에겐 무관심 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학교에 다니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박사학위를 갖고 싶어요. 만일 아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난 절대 그 과정을 끝낼 수 없어요.”

다른 때도 그는 여러차례 그의 아내의 감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상황에 대처하여 아무 일도 하려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적응해야만 했다. 헬라어 반이 모두 끝난 후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후 약 2년이 지나서 나는 그에 대하여 다시 들었다. 남편이 그 소식을 갖고 왔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겠소?” 남편이 말했다.

“무엇인데요?” 내가 물었다.

“어떤 학생의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해.”

“어쨌, 어떤 학생인데?”

남편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남학생이 누군지 알았다. 일방적인 복종을 믿고 있던 헬라어 반의 그 남학생 친구였다. 그는 여러가지 결정적인 방법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 일에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그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복지를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앞세웠고 그의 아내의 감정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기울였다. 그는 그가 해야 할 만큼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었다.

그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참으로 경청하지 않았다. 만일 경청했다면 그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는 자신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나는 불만입니다. 당신은 모든 곳을 다니고 있으나 나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어요”라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많이 있었다. 아내가 신학교의 야간 반에 입학하거나 아내들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서 물론 그는 일터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29절에서 바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을 본능적인 것과 연관시키면서 그 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좋도록 한다. 바울은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잘 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일인데 이유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다른 한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내뿐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 하나의 개체로서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한다. 부부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개인적인 목표나 공동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들은 서로가 목표에 이르도록 돕는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관심하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정상적인 자연의 모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표를 고려함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라고 격려하신다. 그 젊은 청년은 이 분야에서도 역시 실패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위해서도 역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의 목표를 무시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만을 지원하도록 고집함으로 아내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사실 그는 아내 자신의 목표는 갖지 못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계속하여 일하신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는 특별히 중요하다.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참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확실히 모든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복음과 관련된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다른 한쪽 사람도 그리스도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 알맞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근래,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께서 텔레비전 간담회에서 인터뷰 하는것을 들었다. 한 방청객이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는 남편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경우를 실례로 들었다. 대학가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때때로 남편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아내들이 일을 할 경우 간격이 생긴다고 그는 말했다. 갑자기 남편은 지적으로 아내를 앞지르는데, 이 지적인 차이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 아마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딘가 한쪽편의 복지는 희생이 된다. 헬라어 반에 있던 나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소외감을 느끼고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갖는다. 그리고 남편들은 첫 자리를 차지하는데 무척 익숙해 있기 때문

에 전체적인 교제의 필요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일에 실패한다. 아가페 사랑은,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남편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아내가 지적으로 메마르도록 인도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편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과 꼭 같이 아내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한 최선의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표현하기를 기대하시는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서, 복종의 형태인, 아내의 필요에 사랑어린 복종을 하는 것이다.

아내의 책임

베드로전서 3:1-7에서 베드로는 오직 아내만이 그리스도인인 가정을 표준하여 글을 쓰고 있다. 보지 않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세기의 비 기독교인 남편은 여성을 평등하게 만드는 종교에 의해 혐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다른 상황을 마음속에 두고 글을 썼다. 에베소서의 문단에서 그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기독교 가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가정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의 교훈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가정을 향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이 문단에서 바울은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한 해석은 그 문단을 표면만 본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

다. 21절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복종할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만일 바울이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그는 ‘남편’이라는 말 대신 다른 낱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가 사용한 낱말은 ‘아네르’ (anēr) 형태인데 그 낱말을 정상적으로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아네르’가 가끔 남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사용되기는 했으나, 남자들을 집합적으로 언급할 때는 헬라이어 ‘안스로포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남편들’이라고 번역된 낱말 앞에는 소유격 ‘그 자신의’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받을 특별한 자격자는 그 자신의 남편이지 일반적인 남자들이 아니다. 아내는 이 특별한 모양의 복종에 대한 책임을 오직 남편에게만 지고 있다.

22절을 모든 여성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독신여성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신 여성은 남편과 아내의 복종관계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신여성은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의 의견을 좇아야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신 여성도 21절의 상호 복종에 대한 요구에는 구속을 받고 있다. 독신 여성은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바울이 22절에서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복종에 대해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해 참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첫째,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사랑으로 자원하는 굴복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2절에는 동사가 없고 자발적인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 뜻을 가진 21절의 분사로부터 동사가 형성되고 있다. 어쨌든, 동사가 21절에서 빌려와 졌을 때는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 ‘복종하라’(submit)는 변화된다. 실제로는, 그 교훈을 ‘자신을 복종시켜라’(subject yourselves)로 읽어야 한다. 헬라이어 동사태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법과 문화가 요구해 오던 것을 이제는 자원하여 행하라고 말했다. 이 차이가 매우 크게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바울은 이 차이를 만듬으로서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을 기독교의 원리속에 파묻었다. 그는 기술적으로 큰 소동을 벌이지 않고 여성의 지위를 높였다.

둘째, 복종은 자신의 남편에게 대한 것이지 모든 남자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바울은 개개인의 남편에게 사랑의 특이한 모형, 즉 자발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세째,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헌신과 관계되어 있다. 그것은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22절). ‘주께 하듯’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1) 아내는 그의 남편이 주께 복종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2) 아내는 자신이 주께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3)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주께도 복종해야 한다. 모든 믿는자들의 주께 대한 직접적인 교제를 생각하면, 세번째의 것이 더욱 합당한듯 하다. 골로새서 3:18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거기서 복종은 ‘주 안에서’ 합당하거나 혹은 타당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배경 안에서 세워진다.

아내의 복종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요구가 아내와 남편과 전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확신위에 기초한다.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헌신에 의해 다스려지고 성장한다. 그리스도는 아내의 위에 있을 뿐 아니라 남편 위에도 있다. 본문에 기초하여 그 관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B)의 관계보다 (A)의 관계가 바람직하다.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내는 그의 남편이 가족들의 복리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아내도 그리스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한 것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이 항상 명백한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남편이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도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복종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경우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어떤 주어진 일에 있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는 항상 정직하고 비이기적이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강한 가정의 필요를 강조하셨다. 그는 부부가 서로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한 몸의 결혼 개념을 굳게 하셨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한 증거 중의 하나가 굳건한 결혼관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기분을 고려함으로서 행복하고 영속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와같이 남편도 전 가족 위에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식함으로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결혼생활에 기여할 책임을 갖는다. 아내 편에서 평등에 대한 혼돈된 주장을 하거나 남편 편에서 권위를 지나치게 주장하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면서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복종은 ‘모든 일’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결혼 생활이 존립하고 행복하기 위하여는 다량의 주고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 결혼 생활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비밀스러운 재산을 떼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 남편을 믿는 이 자발적인 마음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사실의 조명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헌신되어 있는 남편에게 여성이 복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복종은 가정의 ‘머리’에게 한다. 가정은 하나의 기관이며, 모든 기관은 머리를 필요로 한다. 바울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편의를 따른것에 있다. 남편은 이미 가정의 보호자며 공급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남편의 머리 역할

남편의 머리 역할은 우월한 신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와 기능에 기초한 것이다. 남편은 주나 왕으로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머리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위원회의 회장의 위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회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임명받은 회장이 없다면 그 위원회는 해체되기 안성맞춤일 것이다. 회장은 위원회를 결속하고 결정을 하도록 회의를 인도하고 그 단체의 대변자로서 봉사한다.

인간으로서의 위원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어떤 위원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단지 특별한 책임을 부여 받은 단체의 한 사람일 뿐이다. 회장으로서는 그는 위원회가 부여 받은 책임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만일 그가 훌륭한 인도자라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회원들도 참여시킬 것이다. 그는 우두머리나 혹은 명령자가 아니다. 그의 인격은 반드시 마지막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위원회의 의견이 나누어 졌을 때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야 한다.

아내의 머리로서의 남편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 있어 가족을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두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인도자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위원회의 훌륭한 인도자와 같이 남편은 주어진 일에 있어 아내를 참여시킬 것이다. 그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관심에 따라 책임을 위임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면 토론과 협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두사람은 모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근래 어떤 수양회에서 한 남자가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와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단지 그가 마지막 결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오고가고 모든 일이 행하여졌을 때도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족이나 혹은 가족중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편이 지정된 사람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 협조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견 교환이 매우 명백하여 남편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때는, 그것은 참으로 두 사람의 결정인 것이다.

대부분의 일에서 여성들 보다 현대 여성들은 보다더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능력이 많다. 가정의 머리가 되는 편은, 아내가 더욱 능력이 많은 분야에서는 아내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할 때가 있다.

아내에게 복종해야할 많은 경우들이 생각난다. 이런 것들은 남편들이 자신보다 어떤 분야에서 아내가 더 나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여자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몇일동안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남자아이에게는 비참한 일이었다. 최소한 나의 견해로서는 그랬었다. 어느날 그레그(Greg)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편은 서둘러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좋아,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있어.” 빌(Bill)이 말했다.

“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미친듯이 속삭였다.

“왜?” 남편이 물었다.

“그 빌은 나를 죽여요. 내가 시도 했었어요. 그런데 애가 나를 죽도록 괴롭혔어요.”

그때 그별은 시행되었으나, 나는 남편에게 다시는 그 별을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 나는 남편에게, 그레그(Greg)의 친구가 문에 와서 그를 내 보내 달라고 애원하다가 내가 거절하자 내가 비열한 늙은 어머니라는 힌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레그(Greg)는 여동생들에게 싸움을 걸어 나를 극도로 화나게 하는 등등을 설명했다. 빌은 앞으로 그 별을 줄 때는 미리 알려줬다는데 동의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가게부를 더 잘 정리한다고 밝혀졌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수표페는 일을 더욱 요령있게 잘 한다. 그러나 나는 남자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정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복종한다. 누가 우두머리이며 누가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입견에서 보다는 능력에 기초하여 책임을 맡는 것이 얼마나 더 현명한 일이겠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매일의 가게부 정리는 내가 더 잘하며 자동차나 집에 관한 구입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남편이 더 잘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모든 구입품에 우리는 둘다 참여한다.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우두머리인가를 따져서 일하지 않고 관심과 능력에 따라 일을 한다.

비록 많은 남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아내가 더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복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서 복종한다. 그들은 아내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남자들은 머리의 역할을 맡겨진 기능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책임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월하다는 견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머리에 대한 한계

바울은 남편의 머리역할에 대한 몇가지의 명백한 제한을 설정했다. 세가지의 분명한 한계가 22-24절에서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이미 논한바 다음과 같다. (1) 아내의 복종은 자원적인, 사랑의 행동이다. (2) 복종이라는 이 특별한 모양은 남편에게만 향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남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3) 복종은 주안에서 이다. 그리스도는 아내 뿐 아니라 남편 위에도 있다. 이 특별한 문단은 제한적인 것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두가지의 다른 교훈이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에서 남편의 지도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4)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선다(갈 3:28). 의심할 것 없이, 아내의 평등은 남편을 어떠한 견지에서 아내의 머리로 보는 가에 커다란 관련이 있다. 아내는 결혼생활에서 동반자(partner)이지 재산의 일부가 아니다. 남편은, 그가 동등한 존재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께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의 아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내의 구주이며 주인 것이다.

(5)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 그러나 남자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적인 역할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반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적인 역할은 그의 인간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남자는 이러한 위치를 요구할 수 없다. 남자와 같지 않으신 그리스도는 결코 실수를 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자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항상 알고계신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어떤것을 하라고 믿는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남편은 불완전하다. 그는 실수를 한다. 비록 그가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하더라도 그녀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에 대항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기대되어질 수 없다. 사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동료와 조력자로서 봉사한다.

남편의 머리 역할에 대한 이 마지막 한계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이 문단에 대한 많은 잘못된 해석이 연유되었을 것이다. 많은 경우, 남자는 그리스도와 동등시 되어 왔다. 남자는 모든 여자들, 기혼녀이든 독신녀이든, 그들 위에 뛰어나 있어 왔다.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는 결코 아내의 주나 지배자가 될 수 없다. 그 위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가치가 있다. 아내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한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위에 주로서 봉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명하게 아내들에게 인내하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 반면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그렇

게 말하면서 그는 미래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놓았다. 그 미래가 지금이다. 나의 동료 편집자 한 사람이 근래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가 왔어.” 종교개혁 시대는 구원의 기초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였다. 1600년대는 교회와 국가 관계를 다시 생각할 때였다. 1960년대는 인종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였다. 지금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규명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그 문제를 보아야 할 때이다.

오늘날의 자발적인 복종

1세기에 있어서, 자발적인 복종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들은 좋든 싫든 복종해야 했다. 물론 시대는 변했다. 오늘날에는 바울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발적인 복종에 대한 개념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욱 참되게 적용될 수 있다. 여성들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자원적인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 자발적인 복종은 영속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룩해 나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사실 결혼 생활은 많은 양의 주고 받음이 없이는 영속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 대한 보다 높은 헌신이야말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참다운 열쇠이다. 결혼생활은 영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부부가 신중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남녀들이 행동하는 것 보다 더욱 차원이 높은 상호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바울은 1세기의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

경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최고의 충절이 상호복종에 대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인 억압이 수세기를 걸쳐 복종의 기초가 되어왔던 시대에서 누가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얼마의 사람들은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호복종에 대한 깊은 의미는 미래의 세대가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남겨져 있었다.

자발적이고 상호복종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수세기를 걸쳐 변화해 온 반면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시키라는 명령은 비록 다른 세대에 묶여져 있었던 것이었어도 없어지거나 경솔히 취급될 수 없다. 아내가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아직도 기본적인 길잡이의 원리가 된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동반자로서, 그리스도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통일체로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복종에 대한 마지막 유의점

“피차 복종하라”(21절)고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말했다. 수세기를 걸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아내의 보다 차원 높은 복음을 요구하기 위해 이 본문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남편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남편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높은 이상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남편과 아내는 둘다 사랑으로 복종할 것이 요청되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해야 할 필요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곤 한다. 그러나 21절은 교인들

이 피차 서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들은 교회의 일부이다. 남성들은 교회의 여성들에게는 복종하고 그들의 아내들에게는 복종해서는 아니되는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만일 남자들이 교회의 여성들에게는 복종할 수 있고 그들의 아내들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면, 복종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 주석가는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한 상호복종과 충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하며 가장 축복받은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다.¹⁾

아내의 복종이나 남편의 사랑에 대한 책임은 복음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이 책임을 표현하는 자질이였다. 바울이 설정한 자발적인 복종은 행동을 기초로 한 사랑을 말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의 행동을 배경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모든 국면속에서 표현되는 돌보는 사랑이다.

바울은 결혼생활에서 상호복종 할 필요를 재 강조함으로써 그 토론을 요약하고 있다(32절). 상호복종이 교회에서 필요불가결한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의 필요와 소원들을 합하여 어떤 일이 결정되어야 한다. 때로는 아내의 편에서 더욱 양보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남편이 양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의 직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비록 이것이 안전하고 고정된 규칙은 아니지만 가족들은 남편의 직장을 기초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들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은 요건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복종이라는 기준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문단을 마음속에 두고,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바울이 이 문단을 쓴 한 가지 이유는 결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바울 시대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더러운 관계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성을 악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독신으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고 느꼈다. 디모테전서 4:1-3에서, 바울은 이 견해를 정리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로 이끌려 갔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교한 것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비교를 함으로서 그는 결혼을 높은 수준에 올려 놓았다. 결혼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함으로서 그는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었는가?

확실히 이 문단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 높은 견해를 지녀오도록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고린도전서 7:8-9과 같은 소위 바울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미혼자들은 독신으로 있어야 한다고 그는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든 에베소서 5:21-33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견해는 확실히 긍정적이다.

대부분 아내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를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단순히 아주 옛날부터 영향을 끼쳐왔던 것을 계속하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의 교훈이 옛 모습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주시할 때 몇가지의 문제가 야기 된다. 바울의 글을 전체적으로 상고해 볼 때, 자연적으로 의문이 생긴다. 사역 초기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선포한 사람이(갈 3:28) 어떻게 또한 여성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그 체제에 계속하여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던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일부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를 검토해보면 발견되어진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여기셨을지라도 1세기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내들은 노예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었다. 여성들은 명백히 이등 시민이었다. 확실히 오늘날 처럼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일도 없었다. 여성이 남자에 못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을 참으로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계시를 사회는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 바울은 그 깊이 뿌리박혀 있는 생각을 그가 손가락 몇 개를 깨물거나 혹은 큰 소리를 친다고 하여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등에 대한 대규모의 적용은 미래의 세대가 이행하도록 남겨 두어야 했다.

바울은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헬라의 다소시에서 성장했다. 다소에는 커다란 지방대학교가 있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바울은 아마도 그 대학의 졸업생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회의 굳은 관습을 익히 알고 있었다. 만일 아내가 자신이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

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 큰 규모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주장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붕괴될 것이었다. 만일 그리스도인 아내가 갑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1세기 사회에서의 결혼은 존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 평등을 인정하고 싶어도 그가 하룻밤 사이에 적응하기에는 외부의 문화적인 압력이 지나치게 컸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평등의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에 그 변화를 밀어 넣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왜 여성들에게 옛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듯이 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두번째의 답은 바울이 세운 자신의 삶의 목표에서 발견된다. 그의 큰, 우선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했는데, 풍성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의 생전에 오시리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쨌든 곧 올바르게 되어질 어떤 문제들에게 그의 주된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시간은 짧았다. 그는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로 사용해야 했다.

바울의 교훈과 관계되는 세번째 요소는 복음의 목적에 대한 그의 개념이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변화시켜 그 다음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복음이 사회적인 혁명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각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

람을 존경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자체가 하나의 혁명인 것이다. 고조되고 있는 강조점들이 조만간 사회악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독재는 민주로, 노예제도는 자유에로, 불평등은 평등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변화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 더욱 나쁜 악을 초래하여 그 상처로 인해 삶이 파괴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린도교회가 그런 경우였다. 여성들 편에서 자유를 표현한 것이 교회 전체의 교제를 파괴시켰으며 사회에 대한 간증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한편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자유를 즐겼다.

바울은 자유를 현실이라는 긴장 속에 있는 이상으로 보고, 그것이 삶의 현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활용될 것을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여야 하는가?”라는 견지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여성은 평등하다는 복음의 이상과 과거의 상태, 그리고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변화를 어떻게 이룩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신약성경에 충실했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는 오래전에 안정되었을 것이다.

주

1. Charles R. Eerdman, *The Epistle of Paul to the Ephes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31), p. 112.

4

신약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여성

교회의 한 연사는 우리를 빌립보서 3:10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설득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그 연사는 전문적인 선교사였다. 그녀의 메시지는 여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일상적인 유형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설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그녀는 흔히 있는 여선교사가 아니었다. 선교지에서 그녀는 일반적으로 남성 선교사들이 맡는 역할을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했다. 그녀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설교를 했다. 한 영국 역사가는 이 선교사의 사역에 관한 글을 쓰면서 그녀를 ‘전도자’(evangelist)라고 말했다.

그녀가 미국에 소개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설교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선교사였다. 사적으로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여성은 설교를 하고 있으며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농담을 했다. 나는 오히려 즐겨 걱려를 했다. 그러나 한 순간도 나는 그가 설교자로서 안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약 10년 전인 그 당시 남침례교회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선교사는 문제를 일으킬 의향이 전혀 없었다. 종종 그녀는 왜 그녀가 선교지에서 자주 ‘남자의’ 역할을 맡는지 설명했다. 어떤 남자도 그 특별한 분야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종종, 만일 이 선교사가 설교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도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왔었다. 물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봉사를 일반적으로 설교라고 불려지는 용어로 표현했다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녀의 신앙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들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첫 선포자들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여성들은 선포하는 일에 있어 뒷자리에 물러나 있으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신약 성경보다는 전통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신약시대에, 여성들은 교회의 일에 있어 뛰어난 역할들을 했다.

기도하고 투표하는 여성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

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와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하 힘쓰니라”(행 1:12-14).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사역을 위해 능력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많은 수가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누가는 그 모인 무리중에 누가 있었는지 말했다(행 1:14). 열 한 사도와, 어떤 여자와 예수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들이었다. 누가는 열 한 사도의 이름과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이름을 말했다. 확실히, 그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최초의 독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활 이전에 예수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요 7:3-5). 부활 후 그들은 가장 헌신적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후에 형제중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사도들의 아내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 누가는 그 여자들을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말함으로 그 관계를 말하였을 것이다. 십중팔구, 누가가 말한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고 그의 죽음과 장사지낸 것을 목격한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눅 8:2-3; 23:55).

누가는 약 일백 이십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보고했다(눅 24:49). 초대 교회가 우선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배신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출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그룹을 인도했다. 각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행 1:26) 이 방법은 신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은 원시적인 투표 방법이었다. 사도의 제승자를 선출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립마 1세에게 처형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대신하여 선출되지 않았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로 결정한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열 둘이라는 숫자는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둘째, 그 숫자는 유대인 사회의 규모에 대해 필요한 지도자의 비율과 관계 있는지도 모른다. 셋째, 그 숫자는 새로운 신앙과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결정한 이 선출의 과정에 남녀 모두가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공통적인 헌신을 한 가까이 맺어진 단체였다. 다함께, 권능을 받기 위한 예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기대에 가득차 있는 그러한 때에 그 단체가 남자나 혹은 여자, 어떤 사람을 제외시키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않다.

사도행전 1:24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에 참석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그 단체를 대신하는 한 기도 소리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Thou Lord, which knowest the hearts of all men, KJV)라고 하였다(한글 성경에는 ‘뭇사람’으로 번역하여 원어에 아주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King James Verson 을 필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 번역판에서는“all men”으로 번역하고 있다-역자 주). 실제로 헬라어에 해당하는 ‘men’(남자들)이라

는 말이 헬라어 원본에는 없다. ‘men’ 이라는 말은 ‘흠정역 성서 번역자들이 삽입한 것이다. 대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은 명백히 인간(man-kind)을 가리키기 위한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명사는 ‘모든 인간들’ (all persons) 혹은 ‘모든 사람’ (everyone)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 영어성경(Today’s English Version)만이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헬라어의 ‘모든 사람’(all)에 해당되는 파스(*pas*)는 신약에서 집합적인 의미로 거듭거듭 사용되고 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될 것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all men for my names sake, 마 10:22; 막 13:13; 눅 21:17, KJV). 각각 모두에 쓰인 파스(*pas*)는 일반적인 인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요한복음 12:32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all men, KJV)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다. 파스(*pas*)가 이 구절에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all men)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킨다. 침례요한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all men through him might believe, 요 1:7 KJV) 예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왔다. ‘모든 사람’(all man)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판테스(*pántes*), 즉 파스(*pas*)의 남성 복수형이다. 헬라어 사전을 살펴보면 남성복수형은 분명히 여성이나 중성에도 사용된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판테스(*pántes*)까지도 모든 사람-남자, 여자, 소년, 소녀-을 의미한다. 모두(all)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교회의 사건에서 여성

들은 활동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성령이 거하시고 능력을 받은 여성들

드디어 약속된 날, 오순절이 왔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오순절을 세계의 큰 명절 중 하나로서 로마 전역에 걸쳐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날 믿는 자들은 함께 모였는데, 틀림없이 깊은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이다.

요엘 2장

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 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가는 '모든' 믿는자들이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행 2:1). 결과적으로 그 단체는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

이 있었던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후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던 다락방에 모였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성전안의 어떤 장소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는 사람들의 큰 단체가 모이는 곳으로서 성전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아마 여자들의 출입이 허락되어 있는 성전의 한 곳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 모였든지, 모여있는 장소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군중의 관심을 모았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능력에 관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든지 간에, 그때 일어났던 신기한 현상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격렬한 바람이 하늘로 부터 내려와서 집을 채웠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난 후에 ‘불의 혀’(행 2:3)가 나타났다. 그 경험에는 네가지의 감각기관이 사용되었다. 제자들은 소리를 들었고, 바람의 압력을 느꼈고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다. 약속된 성령의 권능 주심이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성령은 오순절날에 생기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했다(창 1:2).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에서, 우리는 성령과 인간 사이에 이룩된 새로운 관계를 본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은 역사했다. 오순절 날에 그 외적인 제한이 없어졌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게 되었다.

모인 곳에 있었던 모든 믿는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모두-남자들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여러가지의 말을 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불의 혀’가 그들 모두 위에 각각 임했기 때문이었다(행 2:3).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했다(행

2:11).

그 장면이 너무 극적이고 제자들의 행동이 매우 기이 하였기 때문에 군중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했다: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These men are full of new wine KJV, 행 2:13). 술 취했다고 지적 받은 이 사람들은 전체로서 구분 지어졌음에 틀림없다. 여기서도 흠정역 성서 역본에는 헬라어의 ‘그들’(they are) 이라는 의미를 ‘이 남자들’(these men)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헬라어 성경에서 ‘그들’(they are) 이라는 말이 ‘채워진’(being filled) 이라는 의미의 남성분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사용했다. 그 문맥을 “이 남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these men are filled with new wine)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They are filled with new wine) 라고 하는 편이 옳다. 후에 나온 번역판(NASB, NEB, RSV)은 ‘이 남자들’(these men) 대신 ‘그들’(they) 이라고 번역했다(한글 개역판은 ‘저희가’로 번역되어 원본의 뜻에 더욱 합당히 번역되어 있음 -역자주). 열 두 사도가 의심없이 그날의 사건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행 2:14). 그러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과 성경에 의한 권능은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군중들의 반응 때문에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술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지자 요엘이 주께서 모든 육체에 그의 영을 부으실 때에 대해 예언했다고 설명했다(행 2:17).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인간 즉 여자와 남자를 지칭하기 위한 집합적인 의미의 헬라어 여성단어, ‘육체’(flesh)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사

용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요엘이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다.

요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으리라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린 것에 주목하라. 아들과 딸들이 모두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의 예언의 성취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예수로부터 배운 바를 나누는 일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 남자와 여자들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했다. 비록 고정된 관습에 의하여,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던 이 경우에는 예외적인 일이 생겼음에 틀림 없었을 것이다. 그 특별한 시기에, 성령이 매우 명백하게 활동한 때에 사회적 제한도 별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면 그 여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고 남자들도 그것을 받아 들였다. 드보라는 사사였고 미리암과 홀다는 구약의 여선지자였다. 안나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 하나님을 섬긴 일세기의 여선지자였다(눅 2:36-37).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권능 있는 활동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한 평등하고 단합된 사회를 창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초대교회의 사역 중에서 여신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된 박해자 사울의 활동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문제를 만드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공문서를 요청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남자와 여자들을 잡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행 9:2). 만일 여자들이 활동적인 제자들이 아니었거나 남자들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활동이 붕괴된 것 같

았다면, 바울은 여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의 신앙도 남자들의 신앙 처럼 매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들만 체포를 한다면 문제의 일부만을 처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오순절의 기적은 왕국 사역에서의 여성들의 개인적인 사역의 무대를 설정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다. 아들들과 딸들, 남종들이나 여종들에게 기적과 복음이 멀리 로마제국에 까지 펼쳐지기 위한 무대를 설정했다.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메시지를 가슴 속에 품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에 대한 이 전파의 가능성을 주시했을 때 작은 신자들의 무리는 놀라운 격려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은사를 받고 활용한 여성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4-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성령은 신자가 거듭날 때 그에게 거하기 위하여 오신다. 게다가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은사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2:4-1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아홉가지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이 그것들이다. 에베소서 4:11-12에서 바울은 그 은사들을 여러가지의 공적인 기능과 연결을 시켰다. 즉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그 기능들이다. 고린도전서 12:28에서 그는 도우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첨가시켰다. 이곳에 있는 것들이 물론 모두다 라는 뜻이 아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국적이나 성이나 혹은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은사의 모양이 틀리지 않았고, 남성과 여성의 은사에 차이가 있지 않았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특별히 구별짓는 은사도 없었다. 은사는 사람의 통찰력을 기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뜻’ 대로 주어지는데(고전 12:11)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다(엡 4:12). 우리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공헌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적인 견해를 발전시켜 왔는가?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울이 결코 힌트를 보이거나 덧붙여서 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은사의 분배에 대해 강요해 오고 있었다. 성경이 아닌, 전통의 큰 힘은

여성이 봉사할 어떤 영역을 봉쇄해 놓고 말하기를 요컨대, 남자들은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여자들은 어떤 은사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빌립의 딸들: 신약의 여선지자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한 많은 여성들을 만난다. 예언도 그러한 은사의 하나였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예언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3절) 사람을 배우도록 하고 (31절) 불신자를 회개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24-25절)고 설명했다. 요엘이 예언한바 대로, 여자들이 예언을 했다. 사실 이 여자들은 '선지자'라고 불리웠다. 전도자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네 명의 딸들이 있었다. 그들은 명백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었다. 이 예언하는 일은 형식을 갖춘 설교에 대한 언급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교회의 모임에서 말한 것에 대한 언급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나눈 이상의 일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와 연결시켜 여성들의 예언에 대해 말했다. 여성들은 확실히 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언을 했었다. 바울이 예언하는 일에 대해 지도를 한 사실은 1세기의 여성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 사역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성들의 활동으로 빛어진 문제를 다룬 5장을 보라).

교사였던 브리스길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

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행 18:24-26).

신약의 여성들이 활용한 또 하나의 은사는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여성들이 그들의 딸들을 가르쳤던 가정적인 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브리스길라는 신학을 가르친 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그녀가 남자를 가르친 것을 본다.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길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를 만났다. 그들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행 18:2). 클라우디오 왕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설교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 소동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충돌이기 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의 싸움으로 해석되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그의 남편보다 더 높은 계급의 로마인이었으며 더욱 탁월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데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신약에서 이 부부가 여섯번 언급되어 있는데 네번이 그녀를 첫번째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당시로는 약간 희귀한 일이었다(행 18:18, 26; 롬 16:3; 딤후 4:19). 어쨌든 그녀는 대부분의 헬라여성들 처

럼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고린도에서 그녀는 로마의 생활 형태를 따랐는데, 로마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 남편 이외의 남성들과도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남편과 비교해 볼 때, 브리스길라가 지도자 역할을 더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굴라는 조용한 성품이었던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 이유로, 에베소에서 이 부부는 그들의 가정에 교회를 두었었기 때문이다(고전 16:19).

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데리고 갔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더욱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볼로가 어느 분야에 결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듣지 못한다. 그는 오직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부부는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 주었다.

사도행전 18:26에서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녀의 교수 능력에 관한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 그녀는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누가는 필히 그들 부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먼저 썼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흠정역 성서 번역본(King James Version)에서는 26절에 아굴라를 브리스길라 보다 먼저 쓰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표준 헬라어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 후의 번역본들은 이 실수를 보다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헬라어 사본성경에 맞추어 정정했다. 흠정역 성서 번역본의 번역자들은 보다 오래된 사본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여성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가 주후 1611년의 역본에 이름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첫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다른 구절에서, 바울과 그 부부와 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의 사역에서 동역자들로 취급되고 있다.

확실히 브리스길라는 가르치는 자로서 또한 그녀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앞장서는 뛰어난 신약 여성의 모범으로서 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가 그녀의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한 유일한 기록이지만, 은사를 그녀가 활용한 것은 확실히 한번 뿐만은 아니었다. 로마서 16:4에서 바울은 자신 이외에도,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썼다.

브리스길라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 히브리서의 저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받고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서신의 저자로서 가능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도 그 중 한사람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이 서신을 썼거나 혹은 아굴라가 참여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1) 그녀와 바울과의 친밀한 교제; (2) 그녀가 자기 집에 교회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3) 서신의 저자 생략, 만일 저자가 여자였다면 생략했을 것이다.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가장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로서 브리스길라가 추측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이다.

여자 집사 뵈뵈

특별한 교회직분으로 봉사한 것이 신약 여성들의 또 하나의 은사 활용이었다. 유대교에서는 집사의 직분과 유사한 것이 없

기 때문에, 그 직분은 예수께서 강조하신 종의 개념으로부터 성장했던 것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왔으며(막 10:45), 그 섬김이 그의 왕국에서는 위대함의 척도가 된다고 말했다(눅 22:26).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의 모범을 따랐다.

사역자나 혹은 목사 다음으로 오늘날 가장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자 집사일 것이다(여기서의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함-역자주).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이 섬기는 직분을 여성들도 수행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문자적으로 신약에서 집사로 번역되는 말은 ‘종’을 뜻한다. 많은 경우 이 말은 종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이 말은 집사라는 공적인 위치로 번역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그 번역어가 결정된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롬 16:1-2).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딤후 3:8-11).

로마서 16:1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신약에서 처음으로 특별히

언급한 곳이다. 그 구절에서 뵈뵈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Phillips, Lenski, RSV: 개역한글판에는 ‘일군’으로 번역되어 있음-역자 주)로 불리워진다. 집사에 대한 여성 단어가 신약시대 이후부터 발전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뵈뵈를 묘사하기 위해 남성형을 사용했다.

뵈뵈를 집사로 번역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번역본들이 이 견해를 취한다. 문맥이 뵈뵈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갖고 봉사했다는 추리를 지지한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교회의’라는 어귀가 공적인 교회의 직분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¹⁾ 헬라어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아른트(Arndt)와 긴크리히(Gingrich)는 그들이 편찬한 사전에서 로마서 16:1의 ‘종’이라는 말은 ‘여자집사’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²⁾

초대교회의 저술 가운데, 남자 집사와 함께 여자 집사들이 공적인 직분을 갖고 봉사 했었다는 생각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 주후 112년에 로마의 탁월한 웅변가이며 저술가이기도 했던 플리니(Pliny)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해 트라얀(Trajan)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자 집사들에 관해 언급했다. 플리니(Pliny)보다 약 1세기가 지난 후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시대의 규약』(Apostolic Constitutions)에는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위한 지침과 함께 여자 집사들을 위한 교훈들이 쓰여 있다(BK. 3, Sec 7).³⁾ 이 문서는 또한 여자 집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데 관해 말하고 있다.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 모두에게 ‘사역’을 목적으로 안수가 주어졌다. 후의 그리스도인 문헌에도 역시 여자 집사에 관한 많은 참고사항들이 있다.

바울이 뵈뵈를 소개한 방법 또한 이 여자 집사의 직분이 교회에서 낮은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설

명하고 있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뵈뵈는 켈그레아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자 집사 가운데 한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데일 무디(Dale Moody)는 『로마서 주석』(*Broadman Bible Commentary on Romans*)에서, 여자 집사의 직무는 그들의 기능이 잘못 수행되고 반 여성주의가 교회에서 발전되자 공적인 그들의 자격은 점차적으로 줄어갔다고 쓰고 있다.⁴⁾

뵈뵈가 공적인 자격을 갖고 활동했던 또 하나의 암시는 로마서 16:1에 있는 바울의 추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한다”고 했다. 그는 서신을 갖고 가는 사람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러한 방법으로 소개한 것은 뵈뵈가 그의 서신을 갖고 간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인사말 보다 추천의 말을 앞에 쓴 것은 뵈뵈와 편지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증거이다. 뵈뵈는 볼일이 있어 로마에 가려고 했고, 바울은 그 회에 뵈뵈에게 그 서신을 전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은 뵈뵈를 신실한 동역자로서 추천하면서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회중들에게 뵈뵈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확실히 그는 그녀를 매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그는 여성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겼고, 교회가 남성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그녀에게 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바울을 누가 남성 애호주의자(male chauvinist)라고 힐난할 수 있겠는가?

여자 집사를 위한 지침들

신약전서에서 여자 집사에 대해 두번째 언급하고 있는 곳은 디모데전서 3:8-13로서 집사들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1절에 그 내용이 있다. 이 귀절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으나, 두 개의 해석만이 참다운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한가지 견해는 이 여성들을 집사들의 아내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여자집사로 보는 것이다. 앞의 해석을 반대하는 주된 논박은 바울이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여자들’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바울의 교훈은 특별한 자격으로 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교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인들이 11절의 교훈은 여자 집사들에게 적용된다는 해석을 지원한다. 첫째, 문법적인 구조가 여자집사임을 강하게 지지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집사에 상응하는 여성 단어가 신약시대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하여 바울은 ‘여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외 독자들이 바울 자신이 어떤 여자들을 마음속에 두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두번째 요인은 이 교훈을 도입하는 낱말들과 관계되어 있다. 본 장의 첫머리에 감독들을 위한 규정이 나온다. 그런후 8절에서 집사들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8절은 “이와같이 집사들도”라고 시작하는데 ‘이와같이’라는 낱말은 2~7절에서 가리키는 감독에 대한 규정과 집사에 대한 교훈을 연결하고 있다. 둘 다 교회의 직무이다. 11절은 “여자들도 이와같이 단정하고”라고 시작하는데 이 구절은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라는 8절과 완전히 대비를 이룬다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어순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와 ‘여자들도 이와 같이’로 되어 바뀌어 있으나 원어성경에는 어순이 똑같다-역자주). 8절

에서와 마찬가지로 11절에도 특별한 교회직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8절과 마찬가지로 11절도 감독에 대한 교훈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회의 각 직무에 대한 일정한 요구사항들이 요약되어 있다. 바울은 알맞게도 한꺼번에 모든 직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서신을 쓸 때 이 모든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말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여자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 집사들과 함께 여자 집사들에게도 교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며 바람직하다. 교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일한 용어(8절, 11절)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개의 그룹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바울이 주고 있다는 추측을 강화시킨다.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 모두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남자집사들이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집사들도 모든 것에 충성스럽고 신실해야 했다. 나는 이 귀절에서 우리가 여자 집사에 대한 최초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뵈뵈를 천거했는데,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 그녀는 남자 집사의 아내로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여자 집사라는 공적인 자격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다. 바울은 이 여집사를 신뢰하여 우리 신앙의 많은 기본적인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뵈뵈를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영접하도록 지시했다.

과부들 : 봉사를 위한 조직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회중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위해

어떤 지침들을 썼다. 그는 우선 두 종류의 과부 단체를 생각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들과, 돌봐 줄 친척을 갖고 있는 과부들이었다. 그런 후에 9절에서 그는 특별한 단체에 ‘가입될’(taken into) 과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십뵈’(taken into) 이라는 말로 번역된 낱말은 공적인 단체에 임명할 때 사용되는 전문 술어이다. 이 말은 또한 입회된(enlist) 혹은 등록된(enrolled) 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발전된 과부의 서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도나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 등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의 교제를 봉사하도록 기대되었다.

바울은 이 단체의 한 회원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들을 요약했다. 일곱가지의 자격이 설정되어 있다: (1) 최소한 육십세가 되어야 함; (2) 오직 한번만 결혼했어야 함; (3) 선한 일을 행한 호평을 받았어야 함; (4)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함(자신의 자녀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5) 나그네들을 숙박시킴으로 친절을 보였어야 함; (6)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과 같은 가장 비천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해야함; (7) 환란중에 있거나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왔어야 함.

신약전서 외의 초대교회 문헌은 과부들의 계급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사도시대의 규약』(*The Apostolic Constitutions*)은 ‘과부직의 은사’(gift of widowhood)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을, 엘리야를 도왔던 과부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감사를 드렸던 여선지자 안나와 비교하고 있다(제3권, 1부 1장).

어떤 주석가들은 디모데전서 5:9의 과부를 여집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의 다른 자격이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록 디모데전서 3:11을 여

자 집사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해도, 여자 집사와 과부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다르다. 후에 교회 회의에서 과부의 서열에 가입될 수 있는 나이는 육십세로 정하였으나, 여자 집사의 나이는 사십세로 규정했다. 더구나, 여자 집사들에게는 안수가 주어 졌으나, 과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시대의 규약』(Apostolic Constitutions)에서 과부는 여자 집사들에게 순복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과부의 서열은 확실히 신약시대 이후에 발전했던 수도원 제도 속으로 흡수 되었다.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게: 바울의 동역자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행 16:11-15, 40).

뵈뵈만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여성이 아니다. 본 장에는 28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8명의 여성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조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숫자는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확실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뵈뵈와 브리스길라 외에, 루디아는 또 하나의 바울의 동역자였다. 바울이 두번째 선교 여행길로 빌립보에 갔을 때 그녀를 만났다. 이방인인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주빛 천을 만들고 염색하는 곳인 두아디라 시의 사람이었다. 루디아는 마게도니아의 탁월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자주빛 옷(옛날 고위 고관들이 착용했던 옷-역자주)을 취급했는데, 옛날에는 가장 비싼 상품들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변방 강가에서 몇몇 다른 여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다. 루디아는 개종했고 그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하여 그녀의 집을 그들의 본부가 되도록 했다. 그들은 그녀의 관대한 제언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비록 유대인 회당을 만들기 위하여는 열명의 남자가 있어야 했으나, 여성들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자격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달랐다.

다른 두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이 여성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게 였는데, 빌립보서 4:2-3에 언급되어 있다. 아마도 회중들이 그들의 집에 모인 듯하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모든 회중들에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라고 촉구했다. 바울이 그들의 의견의 불일치에 그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생활에 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여성들이 복음에 그와 함께 동역했음을 상기 시켰다.

마게도니아는 여성에 대하여 독립된 자세를 갖고 있는 듯하다. 대체적으로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들은 뒤에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길에 혼자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가정에서조차도 남자

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여성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달랐다. 그들의 이웃인 헬라인들에게는 불가능 했던 자유를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즐기고 있었다. 모울(H.C.G. Moule)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라는 저서에서 “여성들의 존엄성에 대한 복음의 교리는 마게도니아에서 좋은 토양을 찾아낼 수 있었다”⁵⁾고 말하고 있다. 마게도니아에서는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 여성들을 기념하는 공공 기념비가 대중들에 의해 세워졌다. 남자들은 그들의 아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애정깊은 비문을 만들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지방에서의 바울의 선교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 지방의 여성들의 신분을 알 수 있다. 마게도니아의 또 하나의 다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지도자 혹은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제자들의 행렬에 합세해 있는 것을 본다(행 17:4).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베뢰아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개종했다(행 17:12).

마게도니아에서의 상황을 돌아보면, 여성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인상을 받게된다. 그가 활동할 수 있었을 때 남자들을 하나님나라 일에 동참시킨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자들도 참여시켰다.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경직된 사회습관을 존중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히 여성들을 조용한 방법으로 참여시켰다. 바울이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것 처럼 보이는 성경구절들을 부당하게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향한 매우 긍정적인 그의 태도에 대한 참고 자

료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오”라는 말이 여성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거둬들여 인용되어 오면서, 한편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시오”(엡 5:22, 25)라는 말에는 주의가 매우 인색하게 돌려진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 초대 교회의 사역에 있어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바울의 결연한 노력을 강조해 오지 못했던 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어떤 다른 교회와의 관계보다 해가 갈수록 더욱 가깝게 발전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우정의 심도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 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으나, 자신은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원치 않았다(고전 9:18). 여러번 씩 그는 어떤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을 자랑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파한데 대한 댓가를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자신을 처신하지 않았다.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바울은 선물을 받아들였다(빌 4:16; 고후 11:9).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이 보낸 선물은 가이사에게 낸 항소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영혼을 크게 고무시켰음이 틀림없다(빌 4:18).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개종자였고, 처음부터 그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히 그녀가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사역을 위해 관대한 선물을 하도록 지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여성들을 신뢰했다. 그는 교회의 일에 여성들을 참여시켰다. 그는 여성들을 남자들과 동등하게 그의 동역자로 간주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진리를 적용했다.

주

-
1.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The Epistles of Paul* Vol. IV (Nashville: Broadman Press, 1931), p. 425.
 2.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84.
 3. Irah Chase, Translator, *The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 (New York: D. Appleton and Co., 1847), p. 85.
 4. Dale Moody, "Romans,"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ume 10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p. 279.
 5. H. C. G. Moule, Edito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3), p. xiii.

5

신약교회에서의 여성과 문제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모델의 가치를 알고 있다. 마네킹이나 실제의 모델은 상품 구입 대상자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준다. 이 판매 방법은 수많은 판매 방법의 절대적인 본질을 이룬다. 모델을 사용하면 시간과 정력을 절약하고 좌절감을 절감시킨다.

모델은 옷 종류와 같은 물질적인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웹스터의 일곱번째 새 대학생용 사전』 (*Webster's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은 모델을 ‘모방이나 혹은 경쟁을 위한 본보기’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사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종종 자라서 어떤 교사 처럼 되려고 한다. 딸들은 어머니를 모델로 두고 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모델로 두고 있다. 삶의 형태는 모델로서 봉사하는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비교나 경쟁을 위한 모델이 없다면, 삶은 매우 혼돈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확립된 그리스도인 모델이 없었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아직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적용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여성이라는 자신들의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새로운 자유를 성취하려고 모색했을 때, 확실히 이러한 모델은 이곳 저곳에서 다채로웠을 것이다.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으로서, 기독교는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 여성에 대한 기존 모델에 도전을 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일종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여성들이 그들의 평등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심지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거나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록 발전이 느리기는 했으나 사회는 그 당시에도 여성에 대한 더욱 많은 자유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었다. 가이사 아구스도(BC 19년에 즉위한 로마의 황제로서 예수 탄생 직전에 호적하기를 명령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음-역자주)는 한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에 의하여 여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자녀들을 셋이나, 넷 혹은 다섯을 낳은 후에(그 숫자는 여자가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달랐다), 여자는 그녀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독립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법령은 여성의 평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로마제국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아구스도가 그러한 방법을 쓴 이유는 인구 증가를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법은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법령들 외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영향은 여성들이 개인

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거나 전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개인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은 자유를 내포했다. 그러나 문화나 사회의 구원 과정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 과정은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

대체로 말하면 어떤 확연한 위험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적용하는데 뒤따랐던 것이다. 매우 새롭고 알 수 없는 신앙과 함께,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표현을 불신자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 따를 수 있는 기존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새롭게 발견된 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잘못 사용하곤 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부득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하는데 있어 몇가지의 지침을 마련해야 했다.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물론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는 오히려 고투하는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구절들은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수한 자유의 표현이나 혹은 문제들을 취급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고린도 : 이방의 도시

헬라도시인 고린도는 신약시대에 발생한 여성의 자유와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중 하나가 자리잡고 있는 중이었다. 이 도시는 그당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커다란 항구인 그 도시는 헬라의 상업 중심지였다. 고린도의 수에즈 지협을 건너는 모든 선박들은 이 도시에서 조정되었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고린도는 상당히 새로운 도시였다. 주전 146년에 옛 도시는 로마의 집정관 머미우스의 명령으로 불태워졌었다. 백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후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도시를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시저는 로마의 식민지인들을 그곳에 보내어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이 첫 정착민들은 퇴역 군인들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곧 고린도 주위의 사람들이 합세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인구가 약 십만으로 성장한 듯하다.

고린도의 제도는 로마의 것이었다. 그러나 헬라의 예술과 문화가 이 재건된 도시를 주름잡았다. 그리고 불행히도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해 있던 특수한 형태의 헬라의 부도덕함이 이 도시의 예술과 문화와 종교에 수반되었다. 로마제국의 다른 큰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예배가 매우 성장했다. 디오니시우스(바커스라고도 불리운다)에 대한 예배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예배 의식은 소아시아의 옛 어머니 신인 시빌리에 대한 감각적이고 무절제한 격정과 연루되어 있었다. 헬라의 사랑의 여신과 매우 관계가 깊은 아프로디테는 가장 유명한 신이었다. 그 웅대한 신전은 아크로고린트(Acrocorinth)의 정상에 위치해 있었다. 1세기의 헬라 지리학자인 스트라보(Strabo)는, 일천명이 넘는 성창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 성창들 때문에 그 도시로 왔는데, 성창들은 신전에서 심부름을 했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사람들을 유혹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가 로마제국의 일반적인 도시의 도덕 수준보다 더욱 낮도록 만드는데 주된 원인이 되었다.

분명히 새로운 고린도도 옛 고린도에서와 똑같이 종교의 일부로서 성전 매춘을 계속했다. 바울이 살았던 훨씬 오래전 시대부터 고린도는 부도덕으로 그 이름이 높아 있었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주전 400년경)시대부터 ‘고린도 화

된시대'까지는 고린도와 관계된, 특히 매춘부들과 무절제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처럼 감각적인 생활 속으로 말려 들어갔던 시대로 인식되어 있었다. 상업 중심지로서의 고린도는 특수한 죄된 생활의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항구 도시의 느슨한 생활과 뒤섞인 만연하는 이교주의는 도덕 문제에 한하여 확실히 치명적인 연합을 했다.

바울이 로마서 1:18-32에서 이교의 부도덕함에 대해 그의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고린도에 있었다. 바울이 관계된 모든 교회 중에서 고린도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죄들을 간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단단히 동여맬 수 있는 풍부한 그리스도인의 유산을 갖고 있지 못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도덕한 환경에 둘러싸여 그들은 매일의 삶에 기독교의 교훈을 적용시키려 했다.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했다. 몇 번씩 바울은 그들의 오류를 바르게 하도록 도와줘야할 책임을 느꼈다.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근래 나는 케냐의 선교에 대해 말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선교사는 그 나라의 여러 부족들의 관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부족은 특별히 흥미로운 관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관습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데, 화려한 머리형을 하고 밝고 화려한 색깔의 장식을 그 머리에 단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전혀 장식을 하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머

리를 민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의 관습을 바꾸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그 변화를 시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히,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종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당면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겸손의 표인 베일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 특수한 시대와 지역과 사회에서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베일을 계속 쓰라고 가르쳤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2-11).

베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울은 마음속에 고린도라는 죄많은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정된 사회 풍습을 의식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이 교훈을 주었다. 바울은 본 문단에서 공중 예배시에의 남자와 여자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서의 4장에서 주목했듯이 여성들은 교회의 모임에서 말하는 것과 참여하는 일에 있어 그리스도인 시대의 초창기부터 자유로웠다. 그들은 1세기의 유대인 여성들이 예배시에 회당에서 했던것 처럼 칸막이 뒤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칸막이를 사용하는 일과 같은 것을 기독교에 도입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위의 편지를 썼을 때는,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평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을 때였다. 명백히 그들은 지나치게 빨리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예배시에 활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그들의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 예언을 했다.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 이 사회적인 예법의 파괴는 분열을 조장했음에 틀림없다. 비록 사회가 여성들에 의해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 움직여 가고 있기는 했으나, 이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그 세월이 요원했다. 그 특수한 장소와 그 특수한 시대에서, 그들 자신의 명예 뿐 아니라 교회의 명예에 상처를 주지 않고서는 베일을 버릴 수 없었다.

베일을 쓰는 관습은 결코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일세기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여성들은 베일을 쓰지 않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도시마다 그 방법은 다양했다. 로마의 여성들은 베일을 버리려하

는 경향이였다. 유대 사회에서는 베일을 쓰는 것이 기존여성에게는 철저히 적용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소녀는 베일없이 외출할 수 있었으나 기혼 여성은 머리털을 묶는데 베일을 사용할 뿐 아니라 머리를 덮는데도 그것을 사용했다. 관습을 거역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것을 이혼의 이유로 삼을 수도 있었고, 결혼 지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고린도교회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노력은 단지 옛 습관과 맞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상황은 혼잡을 가져왔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미덕의 상징에 대해 그들이 도전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상징은 특별히 중요했는데 헬라사회를 이루고 있던 두가지의 주된 계급 때문이었다. 첫 부류는 다수에 속하는 기혼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기혼 여성들은 완전히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다. 몇가지의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아주 드물었다. 대중 속에서 쓴 베일은 겸손과 미덕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기혼자 라는 신분과 남편에 대한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들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들의 새로운 자유를 표현하려고 할 때는 커다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것이 있었다. 헬라사회에 있던 두번째 계급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했다.

두번째 계급은 하타이라이(hatairai), 즉 고급 창부였다. 하타이라이는 '동료'(companion)라는 뜻의 헬라어 여성 복수 명사이다. 초창기에는 이들중 많은 여성들이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이었다. 그 당시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여성들은 종종 정부가 되었다.

하타이라이가 발전된 또 하나의 요소는, 헬라 사회에서는 아

내들이 남편들의 만찬에 동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들은 사회적인 일에 여성 친구들을 원했다. 그래서 하타이라이는 그들의 사회적인 친구들이 되었다. 여교사들은 그 여성들을 남자들의 훌륭한 친구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을 전담했다. 이 교사들은 여성들이 훌륭한 대화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전을 잘 읽도록 격려했다. 이 여성들은 종종 노래와 춤과 악기 연주 같은 예술활동을 하도록 훈련 받았다. 이 여성들은 공공연히 남자들에게 자유롭게 말하며 여성적인 매력을 과시하는 고급창부였다. 이들 또한 공공연히 베일을 쓰지 않고 외출했으며, 정교한 머리 모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다.

고린도에서, 하타이라이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창으로 일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그들의 활동을 신전에서만 제한하지 않았고 시중의 길거리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일을 팔았다.

이러한 것이 베일을 벗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 뒤에 있는 배경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하타이라이들과 혼동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만약 그러한 혼돈이 발전되도록 그대로 둔다면 교회에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교인들 개인에게 큰 불명예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증거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사회의 배경과 맞서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베일을 벗는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 행동을 단지 예상만 했는지 모른다. 아마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자격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유를 행사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경고를 하여, 그는 이 문제에 관여하고 교훈을 하기로 결심하였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예견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어투가 너무 강하다.

어떤 명백한 위반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바울은 여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을 위해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하기를 원했다. 베일을 벗는 것에 대해 그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신자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했다.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명예가 위태로웠다.

베일과 상식

바울이 여성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요청했을 때, 그는 기존해 있던 남편의 지도적인 역할과 상식에 호소했다. 바울이 그의 논증을 설명했을 때는 마음 속에 기혼 여성들을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첫 논증은 3절부터 시작된다. 이 구절에서 그는 권위의 서열을 말했다. 즉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 이 모든 권위에 대한 설명이 영어에서는(한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역자주) 꼭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어 있으나 사실은 첫번째의 ‘머리’라는 말에만 관사 ‘the’가 붙어 있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그 머리(Christ is the head of man)이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두번째와 세번째의 설명에서 관사가 생략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뜻이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¹⁾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라고 말했다. ‘하나’라는 말은 동등을 암시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것과 똑 같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남자는 동등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머

리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보다 높은 권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얼핏 보기에 바울은 여성들을 하락시키는듯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을 위한 최상의 유익을 찾고 있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준 그의 가르침은 훌륭했다. 그 당시의 남편들은 가족 가운데서 당연한 권위로 있었다. 겸손과 미덕의 표시인 베일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상징이었다. 베일을 버림으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다. 그러한 행동은 남편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었으며, 아내들이 베일을 쓰지 않고 공공연히 외출함으로서 이혼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또한 결혼의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사실상,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위에 관한 일반적인 관습에 복종할 것을 요청했다. 그당시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자세는 자신을 파괴시킬 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상호복종에 대한 영감받은 개념을 본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교회와 궁극적으로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외적인 일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베일은 외적인 문제라는 점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자유를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단지 그는 그 상징을 계속 존속시키라고 말했다. 오늘날도 상징(symbol)을 실재(reality)와 동일시 할 때 가장 슬픈 오류가 생긴다.

4절에서 바울은 베일에 대해 그의 두번째 논증을 시작한다. 그는 여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6절). 오직 하타이라이나 매춘부들만이 베일을 쓰지 않고 공공연히 외출했기 때문에, 그리

스도인 여성들은 이 부도덕한 여성들로 잘못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만일 여자들이 공적인 장소에 앉아 남자들과 이야기 하며, 더구나 베일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사회의 점잖은 남자나 여자들이 그러한 추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 단체의 일원이 되려고 하겠는가? 바울의 자세는, 독립에 대한 여성들의 두드러진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바울이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6절)라고 말한 풍자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간음을 한 것이 확실시 된 여자는 그들의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었다. 십중 팔구 바울은 그 형벌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여자들이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남기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해받지 않을 표를 두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충고한 것이다.

7절에서는 베일에 대한 세번째 논증이 시작된다. 바울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창세기 1:27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단지 ‘형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는, 남자를 묘사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남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남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완수할 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하시는 목적과 일치된다. 앞에서 에베소서 5장에 관한 구절을 논할 때 말한 것(3장)과 같이, 남자의 역할은 우월성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가정의 머리로서 선정한 그 사람의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14:33). 지도자를 갖지 않은 조직체는 어떠한 것이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는다.

바울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했을 때 확실히 그의 마음 속에는 창세기 2:21-23이 있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 남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자가 나타낸다는 의미로 여자는 아마 남자의 영광일 것이다. 이 구절은 여자가 남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 진실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여기서의 요지가 아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남편의 지도적인 역할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지 그의 형상은 아니다. 창세기 1:27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베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집회를 내려다 보는 천사들까지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다(10절). 어떤 종류의 인상일까? 물론 부정적인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들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미래의 고찰없이 이 문제를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기존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다. 그가 남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나타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엡 5:25), 이 문단에서 그는 또 남편의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 놓았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성 (sexes)을 서로 의존하도록 만드셨다고 바울은 말했다(11-12절).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의지한다. 이 상호의존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양쪽이 모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모든 관계 즉 개인적으로나 부부로서의 관계를 다스린다. 그들은 둘 다 그리스도께 응답한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문의처가 되어야 한다.

남편의 지도적인 역할에 대해 바울은 호소에서 시작하여 관찰을 해나가면서 상식에 호소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는 말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13절). 이 말은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이 올바른 인상을 남기느냐?”라는 뜻이다.

베일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즉 사회적인 관습과 그리스도인의 행동 사이에서 수용할 만한 관계를 규정지었다. 선교사들이 일부다처 제도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새로 믿은 남자에게 일부다처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내 한 사람만 남기고 다른 모든 아내는 버리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상식은 천천히 하라고 말한다. 다른 방법은 사회구조에 지나친 혼란을 가져 온다.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들의 새로운 동등한 신분을 사회가 하룻밤 사이에 이해하고 용납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여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말하고서(갈 3:28) 방향을 돌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한결음 앞으로 나간데 대해 단순히 만족해야 했다. 바울의 교훈을 읽으면, 그의 말 뒤에 있는 우선 순위의 목록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순서의 맨 위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일 것이다. 새 신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또한 맨 위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평등을 즉각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목록의 아래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 진리의 무한대한 적용은, 만일 그 일이 우선 순위의 첫번째 일에 방해가 된다면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8:13 또한 인내의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록 어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베일을 버리기를 원했으나 다른 여성들은 그들이 기존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현대의 결혼반지를 끼는 관습은 베일을 쓰는 관습과 비교될 수 있다. 베일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임과 존경의 상징이라면, 결혼 반지는 결혼 서약에 대한 아내의 위임의 상징이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한 단체가 결혼반지를 끼는 것은 그들의 독립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결혼반지를 끼지 않기로 가결했다면 어떤 옳지않은 인상을 그들이 받게 될까? 어떤 부당한 힐책을 그들이 받겠는가?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자유의 실천이 희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 문단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여성들에게 예배시에 모자나 혹은 머리 수건을 쓰라고 요구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도 그

렇게 한적이 없었다. 의복(배일은 의복의 한 종류이다-역자주)에 관해 바울이 한 말의 특별한 적용은 일차적으로 1세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증거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남성들은 여전히 책임있게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전에는 그들 생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오늘날에는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경고는 적합하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바라건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자유와 맞서는 관습 : 계속되는 갈등

혼란을 피함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전 14:34-35).

본 문단은 그리스도인의 평등에 대한 표현과 고정된 사회 관습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두번째로 좋은 본보기이다. 이 교훈은 예배 행위를 위한 어떤 지침들과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다. 명백히 예배는 질서가 없게 되었고 불경건하기까지 했다. 고린도전서 14:26-36에서 바울은 어떤 지침들을 제공했다. 33절은 그의 엄중함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때문이었다. 확실히 여성들의 활동들이 문제의 일부였

다.

고린도전서 14:34이 여자는 교회의 예배시에 어떤 말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오기는 했으나 바울은 확실히 그런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주장에 도전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바울이 11장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의 여성에 관한 말을 해놓고 바로 석장 후에 어떻게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11장에서 여성들의 예언에 대한 반대의 힌트가 전혀 없는데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두가지의 부당한 답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바울은 앞에서 몇가지 지침을 두고 승낙했던 활동을 동결했다. 둘째, 바울은 모순된 말을 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말하는데 대하여 11장과 14장 사이에서 바울은 심중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제안은 좀 약하다.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는 지성적이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와같은 사람으로서 그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말은 바르게 수정하였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반드시 하였을 것이다. 질문에 대해 두번째로 제시된 답에 관하여, 영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울이 모순된 말을 했다고 믿도록 하지 않는다. 바울은 능력있는 지도자였다. 그는 그러한 부주의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약 이십년간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믿는 바를 계속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강한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견해에 모순이나 혹은 변화를 일으킨듯 하다는 것 보다 더욱 그럴듯한 설명은 바울이 11장에서 언급한 활동의 형태와 14장

에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11장에서는 성령의 뚜렷한 인도하심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말한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들은 신자들이 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했다. 14 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언어 활동에 대한 언급인데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33절에서 언급한 어지러움과 관계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아마 여성들은 많은 한담에 가담함으로서 공적인 집회에서 말하는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였을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은 둘 중 하나를 가리킬 수 있다: (1) 그들은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연사의 말을 중단시키고 있었다. (2)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함으로서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둘중 하나의 활동이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을 것인데 유대인 여성들은 회당의 예배시에 결코 참여하는 일이 없었다. 유대인의 마음 속에 여자가 공중 예배시에 남자처럼 담대한 것은 명백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만일 초대교회가 바울이 말한 본문을 여자는 교회에서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다면, 우리는 그렇다는 어떤 실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 여성들 보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바울은 많은 여성들을 남자들과 대등하게 그의 동역자로 임명했다. 자격을 가진 여성들은 초대교회에서 권위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4세기 까지 여성들은 손을 얹는 안수를 받았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결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다.

고상한 취미를 갖는 것

디모데전서 2:9-15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과 고정된 사회관습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한 세번째의 본보기를 발견한다.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꺾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꺾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 2:9-15).

고린도전서 14장의 구절에서 처럼 본문에서도 바울은 공중에 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교회는 디모데가 섬기는 곳으로써 에베소에 있었다.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에베소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도시의 문화는 거의가 헬라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도 여성에 대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자세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 전에 언급한 것 처럼, 헬라와 유대 여성들은 어떤 모양의 공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뒷편에 물러서 있도록 기대되었다.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고린도에서의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 또한 너무 빨리 가고 있었다.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도 다이나나 신전에 속해 있는 많은 이방신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의 기능은 고린도의 아프로디테신전에

서 활동하는 성창들의 것과 비슷했다. 아담한 옷에 대한 바울의 충고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동일시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비싼 옷으로 외모를 과시하는 것 보다 내적인 순결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11절) 고 바울은 충고했다. 앞에서 말한바 대로, 유대인 여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회중에 있는 남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여자들의 의무는 예배시에 조용히 듣고, 아들들을 회당에 공부하러 보내고, 가정적인 일에 참여하며, 남편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만 국한되어 있었다. 유대인 아내들은 확실히 큰 존경을 받았으나(잠31), 그 존경은 어떤 면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공적으로는, 사회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소녀들과 여성들이 소년이나 남성들과 동등하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만, 바울시대에는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다.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유대인 남자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상, 여자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들이 신학을 배울 수 있다고 명확히 가리킨 것은 하나의 양보였다. “여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Let the women learn) 고 바울은 말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무척 작은 진보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진보였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선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영향을 미쳤다.

자유 사용하기를 배움

아마 얼마동안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에 갈라디아서 3:28에서 표현한 그의 평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빚어진 소란은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디도서 2:5은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독립에 대한 여성들의 주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시사한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도록' 여자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다. 만일 여자들이 예배시에 가르치고 말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는 말이 들면, 교회는 부도덕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현명하게 헬라사회에 적절한 단 몇가지의 규정만을 썼다.

4장에서 언급한 바 대로 로마지역의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로마 사회의 어느 다른 지역의 여성들 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 확실히 에베소나 고린도의 관습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같은 마게도니아 도시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완고한 지침을 세워두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에베소나 고린도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수준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는 위협이 없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신분 높은 여성들을 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루디아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류사업가의 한 본보기가 된다.

사람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은 삶의 한 실제 문제이다. 이 통찰력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중 하나이다. 종종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빨리 어떤 자유를 준다. 이렇게 될 때 아동들은 오류를 범하고 어

떤 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경우에는, 종전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가,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에베소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상황이 이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 특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더욱 더 잘 안다. 그들은 자유를 어느 정도 사용해 왔었기 때문이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주후 61-62년경 바울이 첫번째 투옥되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 서신서들은 두개의 주된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신서들 중 두개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하나의 도시(city)로 보고 있다. 에베소서 2:19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동료 시민’(fellow citizens)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빌립보서 3:2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늘의 왕국과 연관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연결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람과 일이라는 견해에서 발견된다(엡 1:19-23; 빌 2:5-11; 골 1:15-19).

이 세개의 서신이 명백하게 관계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한다. 즉 바울은 왜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교제에 관해 특별한 교훈을 했으며 왜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에베소서(5:22)와 골로새서(3:18)에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그러한 교훈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내용이 달랐던 이유가 각 지역 사회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같은 지역에 위치했던 에베소와 골로새에서는 여자들에게 자유가 거의 주어지지 않

았다. 여자들은 어떤 곳에서도 남자들과 평등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그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계를 넘었고 급기야는 많은 오류를 범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어느 수준의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책임있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자유에 대한 그들의 표현은 가정의 안정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회중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지원해 준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나 골로새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똑 같이 자유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내해야 했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직면하도록 인도했다.

어떤 일정한 사회의 특수한 시기에 적용했던 규정들이 성경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 있는 본문이 디모테전서 2장에 있는 본문과 더불어 그 한 본보기가 된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여성들이 머리를 땅거나 보석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영원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 본문 중에서 한 문단의 한쪽 부분은 지역사회와 시대의 것으로 돌리고 같은 문단의 다른 한쪽 부분은 일반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는가? 더구나, 성경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강조하여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대항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공부의 전통적이고 유서깊은 방법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 우리는 머리를 땅거나 보석을 다는 일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12에서 금하고 있는 사실에 여성들을 영원히 묶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 뒤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묶여져 있다. 고상한 취미와 건전한 판단력이라는 일반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있어 교회의 명예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 형세는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일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품위없는 일로 규정지어 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여성들에게 어떤 기회들을 막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에 흑점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 자유를 책임있게 활용해야 한다.

주

-
1.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47), p. 781.

6

여성 : 모든 관계에서의 평등

1 세기에 유대인 남자들은 그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은 옛 유대인 기도서에 있는 감사기도의 한 요소였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기도를 암기하였을 것이다. 다른 유대인 남자와 똑같이, 그는 그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였을 것이며,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 여자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남자의 세계였다!

나는 종종 유대인 여성들은 그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곤 했다. 많은 다른 피압박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간과해 나가려 했을 것이다. 혹은 아마 커다란 불리한 자리에 자기들을 두는 일을 그저 수용하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미국 초창기에 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감정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국 여성의 한 이야기가 있다. 여성참정권 운동자의 지도자였던 루시 스톤(Lucy Stone)의 어머니였던 스톤부인은 새로 탄생한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여자 아이라서 매우 माम아파. 여자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¹⁾라고 말했다. 스톤부인

의 말은 확실히 육체적인 노동과 가정에서의 요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나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도 그녀의 감정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근래까지도 여성들이 밖에서 자기를 성취시킬 권리를 찾는 일을 출산과 가사의 의무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기본적인 책임과 출산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여자는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모자란다는 생각에서 온다. 16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며 치안판사였던 진 보딘(Jean Bodin)은 남자는 여자보다 더 큰 머리를 갖고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두뇌와 감성이 더 뛰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론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다는 그 결론이 머리의 크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나 그 결론은 여전히 여성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다만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만일 여성들이 세기를 걸쳐오면서, 남성들과 동등하다고 용납되어 졌다면,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 현대의 편리한 도구들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힘들게 일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항상 불리한 조건에 있어 왔다. 남성들은 항상 손위 사람으로 존재해 왔었다. 그들은 항상 맘 폭 놓고 이야기 해 왔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마지막 결정권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여 그들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려왔었다.

참고 해야할 것

예수께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여성을 천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 내셨다. 예수께서는 여성을 수세기를 걸쳐오던 치욕에서 풀어 주셨다. 그는 여성을 남자들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 그의 대 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같이 모든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요 17:20). 하나라는 것은 평등을 암시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취해야 할 자세의 구속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포함한 모든 것에 관한 견해가 개혁된 사람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모든 인간의 장벽이 사라짐을 보았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하나의 새로운 특성을 창조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신실한 사도는 갈라디아서 3:28을 써서,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그의 성장 배경의 어떠한 요구도 거부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이다.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썼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관습들을 융합시키기를 원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후 이방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위해 침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어떤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했으며(갈 4:10), 여러 면으로 유대 법에 묶어두기를 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은혜아래 있지, 율법아래 있지 않다고 선포했다(갈 5:13).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의 첫번째 저술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주후 50년 예루살렘회의 직후에 쓰여진 첫번째 서신이라고 생각한다. 예루살렘회의는,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라는 유대인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만일 이 견해가 옳다면 갈라디아서는 주후 51년에 쓰여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 54년과 5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썼던 것과 같은 시대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갈라디아서는 여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서와 같은 편지들을 쓰기 전에 쓴것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쓰여졌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3:28절에 있는 진술은 기독교 교리의 탁월한 대변가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일찍 선포한 하나의 평등선포가 된다. 비록 갈라디아서가 좀더 늦게, 로마서와 고린도서들이 기록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포는 여전히 감동적이다. 두개의 편지 모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다(롬 10:12; 고전 12:13). 후에 골로새서 3:11에서, 그는 다시 평등에 대해 말했다. 평등에 관한 이 다른 참고 구절들에서, 어쨌든, 바울은 특별히 남녀의 관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고있지 않다. 아마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28의 모든 사람

이러는데 대한 여성들의 실제적인 적용때문에 분출된 소란때문 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지도 모른다.

인간 관계에 대한 바울이 쓴 구절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으나 갈라디아서 3:28이 의미하는 데 대하여는 커다란 의견 차이가 없다. 그 의미는 아주 명백한데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바울은 확실하게 여성에 대한 예수의 긍정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 바울의 글은 또한 여성들의 일에 감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수많은 경우에 그는 감사를 강조했다.

갈라디아서 3:28의 뜻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같을 뿐 아니라 이 구절에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역시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이 구절은 바울의 삶의 원리, 즉 인간 관계를 판단할 때 기초했던 점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발전된 그의 기본적인 인생관을 표현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는 유대주의와 그 사회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 있어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가!

경시되는 구절

지난 몇년 동안까지, 고린도전서 14:34, 에베소서 5:22, 그리고 디모데전서 2:11의 여자에 관한 바울의 말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엡 5:25) 라는 말과 갈라디아서 3:28의 말 보다 수백번이나 더 많이 인용되었다. 여러 모임에서 “여자들은 잠

잠해야 한다”고 농담으로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확실히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이 문명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나타낸다면, 왜 이 말씀이 더욱 강조되어 오지 않았는가? 한가지 이유는 아마 문화와 전통이 더욱 우세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지 거의 200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문화도 이 기간을 완전히 장악해오지 못했다. 그 일은 불가능한 듯하다. 그러나 어떤 분야와 어떤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습과 문화를 더욱 영향력있게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엇을 그들이 행하여 왔는지 조용히 앉아 생각하고 규정해 본다면 아마 십중팔구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문화에 의해 결정된 수많은 행동과 태도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28을 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해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영감된 성경의 일부로 취급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평등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문화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 결과의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 오지 않았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오지 못한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유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남녀평등은 오직 영적인 일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독일의 도미니안 수도사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에 있어 여자는 남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견해는 두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첫째, 신약성경은 가르치기를 영적인 관심거리인 삶의 다른 부분들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하지 일부에만 미쳐서는 아니된다. 하나님은 교회의 내적인 활동에서 뿐 아니라 사람의 외적인 활동의 하나님도 되신다. 구원은 거듭날 때 시작되고 삶 전체를 통한 성장 과정으로서 계속되며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배타주의라는 죄를 그가 어떻게 논박했는가를 말하고 있다(11절). 동족들의 압박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석하기를 거절했다(12절). 베드로는 그의 행동으로서 유대주의 행습으로 되돌아 갔다. 그는 이방인들을 평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갈라디아서 3:28을 어겼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의 본을 따랐다(13절).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바울은 그 문제에 관하여 베드로를 공적으로 논박했다(14절). 바울은 베드로가 예배시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교제시간에는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자신이 헐어버리는 것이었다(18절). 베드로의 사회생활은 그의 예배생활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되었었다. 인간은 종합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진리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일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기독교의 원리는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적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되

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버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그의 교훈을 세상으로 알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20). 누룩처럼, 기독교의 원리는 세상에 침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될 것이 기대된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교훈을 단지 입술로만 뇌인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갈라디아서 3:28은 삶의 모든 국면, 즉 교회의 안과 밖 모든 곳에 적용되어 져야 한다. 사실 이 구절의 적용을 시작하기 좋은 곳은 교회의 사역에서일 것이다. 교회는 모든 사건에서 평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인 일을 교회 앞에 내어 놓기 전에, 대부분의 모든 중요한 일을 집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판단한다. 집사회는, 한 사람의 여자도 없이, 교회의 의결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사역에서 이 정도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교단 전체를 걸쳐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음성을 무시하는 곳은 비단 우리교단 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나와 나의 남편은 교회 사역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른 교단의 모임에 참석했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객석에서 한 남자가 말하기를 그 일에 여성을 참여시킨 방법에 대해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 공개 토론에서 네 명의 남자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었다. 그 토론회는 좋았다. 그러나 한 여자가 어떤 남자도 제공할 수 없었던 이해의 차원을 제공하곤 했었다. 나를 나무라지 말기 바란다. 나는 남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동일한 잘못을 거듭 행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갈라디아서 3:28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오지 못한 세번째 이유는 전 세계인이 모두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나의 남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레바논에서의 한 사건을 내게 말해 주었다. 나의 남편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레바논에서 요르단으로 가고 있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준비를 할 때, 모든 남자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까지 여자들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유럽여성이 중얼거리며 불평을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요르단 남자가 자랑스럽게 그 여자를 확신시키며 말했다. “그곳에서는 여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확실히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남녀 동등이라는 그 실현 가능성을 생각도 해 볼 수 없이 지내왔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28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동일이 아닌 평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서 평등이란 말을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서 말하는 평등한 항목은 ‘가치가 동일’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 항목이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학술적으로 일난성 쌍생아도 동일하지 않다. 그들은 똑같이 보이지만 가까운 친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그 차이점이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개성 역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가치면에서 평등할 수 있다.

남녀 평등은 두개의 성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다. 분명히 두 성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생물학적인 차이가 열등하거나 월등한 것을 판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하튼 남자의 모습이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되어왔다. 이 점이 어느 날 휴식시간에 나의 맘을 찔렀다. 나는 남성 편집자들과 고문

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성의 위치에 대한 것이 화제에 올랐다. 한 편집인은 그가 담임 목사로 시무했을 때 채용했던 한 비서에 대해 말했다. “그 여자는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짝이 있습니다. 여자처럼 행동하나 남자처럼 생각했어요”라고 그 편집인이 말했다. 그는 참으로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남자의 사고과정이 여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그는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을 어떤 사고방식에 의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여성에게 남자 처럼 행동하거나 반응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기대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성에 대한 모반이다. 아무도 그러한 진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래서, 여성은 그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에게 남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가 여성의 삶을 위해 주어져야 한다.

혁명적인 진리 이행

혁명적이며 성취하기가 어려우나 반드시 필요한 진리의 적용은 천천히 시행되어 나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3:28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야만 할 기본적인 세가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얼마간의 발전이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란히 서서 일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전통적인 편견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갈라디아서 2:11-12과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고된 베드로의 자세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인 소란이 그

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이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어떤 제한도 가지 않았다. 더구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두개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가했다.

바울은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으나, 그는 노예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여 그 개념을 즉각적으로 성취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단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바울은 그가 말한 그 신분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며’ (엡 6:5; 딤후 2:9), 존경하고 (딤후전 6:1), 선한 주인에게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나 복종하라고 (벧전 2:18) 말했다. 그는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 보내기까지 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노예에게 - 적어도 때가 올때까지는, 계속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여 소란과 문제를 피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에게 선하며 (엡 6:9), 그들도 하늘에 계신 그들의 주인에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골 4:1), 그리고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몬 16) 말했다. 바울은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인들과 노예들이 바울이 가르친 대로 서로를 대우했다면 노예제도는 없어졌을 것인데 그 이유는 형제들은 서로를 노예나 혹은 주인처럼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바울이 노예해방운동을 시작했다면 어느정도 좀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 일은 전문적인 직업 이상이었을 것이

다.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처럼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것은 1세기에선 커다란 진보가 아닐 수 없었다. 바울은 미래의 확고하고 확실한 변화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미 기존하고 있는 법과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만일 그가 이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렀다면, 복음은 필시 심각한 좌절로 인해 수난을 겪었을 것이다.

사실, 바울은 노예와 주인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 평등의 이상을 적용했다. 그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교회 일에 여성들을 참여시켰다. 4장에서 말한 바대로, 마게도니아 여성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그곳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이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바울은 여성들이 억눌려 있는 지역에서도 여성들에게 교회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회중들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역반응 때문에, 바울은 여성들의 참여를 부득불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그는 여성들에게 예언을 할 때 베일을 쓰는 관습의 요구에 순응하라고 말했다(고전 11:5). 그는 여자들이 교회 예배시 질문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관습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전 14:34). 남자들에게 용인되어 있고 기존되어 있는 권위있는 역할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고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했다(딤후전 2:12). 복음의 미래가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우선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미심쩍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 (딤후 2:5)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3:28의 교훈을 다른 세대에서 더욱 완전히 적용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현실은 바울이 평등에 관하여 말한 바를 이해하고 있던 남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음

에 틀림없다.

아마도 변화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늦게 온듯 하다. 성반대주의자들의 편견은, 신약시대 이후에 받던 성직자들 사이의 독신에 대한 부당한 강조와 함께 이 발전을 저해시켰다. 더구나 암흑시대의 혼돈은 서구사회를 여러가지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치게 했다. 우리는 이제 막 여러모로 많은 암흑시대의 잘못된 정신을 바로 고치고 있다. 여태껏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은 급기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받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것과 싸우려 한다. 노예제도는 폐지되어 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발전을 반대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며, 여자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한다. 흑인들을 복종하도록 하기위해 인용된 논증과 같은 논증의 일부가 여성들을 ‘그들의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바울은 여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위치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성령의 인도 아래서, 바울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그들의 자신의 권리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가 말한 이상들은, 불행히도,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의 여성에 관한 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성경구절들이 (고전, 딤후에 있는)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근본 말씀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직한 성경해석을 위하여는, 그 문단들은 갈라디아서 3:28의 조명아래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성의 역할에 관한 바울의 견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검

증에서도 반드시 참고 사항으로 이 구절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 관한 바울의 총체적인 진술이다. 그 구절은 그가 말한 모든 진술들이 그 아래서 은둔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처이다.

우리는 더 이상 1세기에 있지 않다. 바울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로 인해 우리는 자유의 오용에 대한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피할 수 있다. 초창기의 제자들은 기독교가 너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분야에서 천천히 걸어야 했으나, 우리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태껏 존재했던 그 어느 세대보다 더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갈라디아서 3:28에 내포된 교훈을 모든 면에서 보다 넓게 적용하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왔다.

주

-
1. Georgia Harkness, *Women in Church and Socie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p. 93.

결 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막 15:37-38).

예수의 죽음에는 많은 신비한 사건들이 뒤따랐다.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일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사람은 모두 이 사건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그 휘장이 사람이 찢을 때 처럼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로 여겨졌다. 언약궤를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내에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곳에 그것을 보존 했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 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일년에 단 한번의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에, 그는 전 히브리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쳤다(히 9:7; 레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제한을 제거하셨다. 그가 희생의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성소는 열리게 된 것이다.

두터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상징했다.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모든 믿는 자는 인간 중보자, 즉 중개인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모든 믿는 자는 남자나 여자할 것 없이 각자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특권과 더불어 중요한 책임이 왔다. 각 개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완전히 중개자를 의뢰할 수 없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은 일대일로 하나님과 교제할 신성한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 새로운 교제를 우리는 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 동등한 발판위에 있는 모든 사람-남자와 여자-에게 놓여있다.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는, 함께 이 평등함이 교회에서와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일해야 한다.

여자의 최고의 적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의 희생이 남녀 관계를 구속하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였다면, 왜 여자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오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여성들의 불리한 입장에 대해 온전히 남성들만을 힐책하기 쉬우나, 그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종종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의 평등을 거부하는 일을 한다. 여성들이 참정권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한 반대 구역이 여성들로 이루어 졌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이란 집에 머물면서 그러한 일에는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상황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근간 우리 지방의 한 신문 사설 만평란에 두 학교의 여대생들의 그림이 실려 있었다. 밀방망이를 든 한 무리의 주부들이 그들을 향

해 주먹을 흔들고 있는 호전적인 여권주의자들을 향해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종종 여성들은 함께 앉아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랑하는 애비」(Dear Abby)라는 특별 기고란에는 여성이 여성을 대적하는 어떤 묘한 방법을 싣고 있었다. 어떤 여비서가 편지를 썼는데, 그녀의 상관이 그 여비서에게 그의 아내가 샀던 허리띠를 가게에 돌려 주라고 말했다면서 불평을 털어 놓았다. 한 여성이 남편을 통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상관의 아내는 그 허리띠를 가게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성에게 그 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나의 남편은, “남자는 그의 아내가 좋아할 때는 자유한 여성의 견지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의 여성운동 가운데서, 어떤 여성들은 옛날의 과오를 반복하면서 여성을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급히 요구하고 있다. 일세기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를 요구했을 때,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 받았다. 여성들이 그들의 참정권 운동을 했을 때(미국의 여성운동을 말하고 있음 - 역자주), 흑인 남성들의 투표권도 함께 보장되어 있는 헌법 14항과 15항의 부가조항에 제시된 권리를 함께 주장하면서 재촉했기 때문에 얼마간의 남성지지들을 잃게 되었다.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의 얼마는 여성 참정권 주창자들에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때는 ‘흑인들의 시간’이며, 더우기 여성참정권 주창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들으려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안달하지 않았더라면 참정권을 보다 빨리 획득했을 지도 모른다.

1977년 11월 27일자 「테네시 주민」(The Tennessean)지의 연속 만평에서는,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여성 대회’ (National Women’s Conference)의 며칠 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급히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만화를 그리고 있다. 무분별하게 차를 몰고 있는 한 여성이 나무를 들이받았다. 그녀의 남편이 더 조심하여 차를 몰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그녀는 “귀찮게 굴지 말아요. 이 돼지 같은 양반아!” 라고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찌그러진 자동차에는 ‘ERA(동등권) 지금’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대회에 있었던 많은 주장의 극단적인 태도가 여성운동을 위축시켰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비록 전국 여성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들을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때에 취한 몇몇가지 태도들은 아직도 모든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고있다.

기독교 여성들의 권리에서 배제해야 할 것들

휴스턴에서의 전국 여성 대회가 있기 두달 전인, 1977년 8월 23일, 한 평론가는 그 모임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¹⁾ 평등권(ERA)을 지지하는 일 이외에 다른 요구도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즉 임신 중절의 요청, 동성 연애(homosexual marriages)의 합법화, 동성 연애자들의 양자 입양권, 직업모드를 위한 공립 주간 아동 보호소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또 “대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많은 미국여성들이 반대하는 정치적인 안건도 그 대회는 채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들은 거의 적중했다. 어떤 경우에는 불행히도, 뚜렷이 도덕적인 국면이 근본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기독교여성인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포함

한 일련의 항목들을 지지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6:9에서 바울은 동성연애 행위를 우상숭배와 도적과 동일한 범주에 넣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죄이다. 동성연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권운동과 연결조차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것은 여권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이다. 평등권의 운명이(최소한 정치적으로) 동성연애와 임신중절이라는 도덕적인 문제와 묶여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등권은 동성연애와 임신중절의 요청과 함께 상기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여성의 권리는 기독교의 원칙과 도덕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 성경이 기독교여성들의 삶의 양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발전해야 할 책임을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도덕과 정당한 일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다.

기독교 여성의 권리에 포함되어야 할 것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목표 속에서 배제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과 똑같이 또한 첨가 시켜야 할 몇가지 목표들이 있다. 반드시 첨가시켜야 할 한가지 조항은 '모든 기독교 여성의 제사장직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어떤 여성에게 그것은 독신 생활의 선택을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다. 결혼은 물론 여성에게 제한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만 만족하라는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가정 주부의 역할에서

만 최상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낄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가정주부의 역할과 시간제 직업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함께 갖기를 선택한다. 한쪽의 선택이 다른 한쪽의 선택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택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여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 즉 그 여성의 선택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그 선택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권리에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두번째 항목은 ‘가족을 존중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는 반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 3장에서 살펴본바 대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교하고 있다. 실로 대단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그것은 사회에 힘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여성이 직업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자녀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내의 일에 대해 부부가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과거처럼 완고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신분에 맞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소수의 부부들이 역할을 서로 바꾸어 활동할 수가 있었으나 그러한 엇갈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합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가사일은 여성이,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의 공급자로서는 남성이 낫다. 평등이 역할의 엇갈림을 나무라지 않는 반면 이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잘못되었거나 불평등이 될 이유는 전혀없다. 이런 견해는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할 경우 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 만일 남편이 생활비의 기본적인 충당자라면 가정이 이사할 방향은 그의 직장을 우선순위로하여 결정된다. 가족들은 아내의 직업에 따르기 보다는 남편의 직장을 기초로하여 이사할 것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른 세계

역사를 통하여 여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 법으로는 많은 권리가 거부되어 왔으나, 교묘한 속임수나 그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할 나위 없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즉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을 사용해 왔다. 즉 은밀히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 왔다. 비록 로마인 아버지는 기술적으로는 혼자서 딸을 주관했으며, 현명한 남자는 딸에 대해 자기에게 주어진 결혼 준비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그의 아내와 나누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막대한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주관할 권리가 없었을 때, 그들은 노련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지명된 법정 후견인이 그 여자의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그 여자로 하여금 그 후견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지로는 여성의 재산을 거의 주관할 수 없는 명목상의 후견인일 뿐이었다.

여성들이 항상 자신들의 방법을 가져왔다면, 왜 구태여 우리

는 평등권을 재촉할 필요가 있는가? 한가지 훌륭한 이유는 교묘한 수단은 부정직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여성들은 정직하게 그들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것을 몰래 가져서는 아니된다.

얼마 전 나는 한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짧았을 때 그의 남편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머리가 꽤 짧아 졌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화를 내고는 몇시간 동안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급기야 그 문제에 대해 그 남편이 말하려고 하자 그 여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 여자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미용사에게 이렇게 짧게 짜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해버렸어요”라고 말했다. 모두 용서되었다. 미용사가 아마 잘못 알고 그여자의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그럴 수도 있었으리라는 가정일 뿐이다. 그 아내는 머리를 짧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미리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말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 대로 행동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만일 정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여성이 삶의 한 분야에서 계략을 사용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것을 사용한다. 권리를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부정직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계략적인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는 여성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녀는 단지 그 숙명을 받아들이고, 권리 없이 자신을 적용시킨다.

우리는 오늘날 다른 세계속에 살고 있다. 이 세계 속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1세기에 사용했던 기

술을 사용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우리가 1세기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물론 줄잡아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회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교회 밖의 세속 세계는 남녀 동등권의 원칙들을 너무 급한 속도로 적용하고 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할 기회와 홍보의 견지에서 그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느리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성들이 예배시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1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는 여성들이 문명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여성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아내가 저녁밥을 태웠거나 어떤 일에 있어 남편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남편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고린도전서 11:11-12과 갈라디아서 3:28, 그리고 에베소서 5:21-33에 있는 상호 관계에 대한 몇몇 특별한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관계속에서 강요될 수는 없는 반면 상호 관심과 사랑에 대한 영속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깊은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이 성경 구절들은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떠한가라는 조명속에서 현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1세기, 로마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일에 여성이 참여하면 소동이 일어났다. 바울은 현명하게 그들의 참여에 제한을 가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일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천박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실은 바로 그 반대이다. 여성이 그러한 권리를 오늘날 부인한다면 교회의 비판이라는 고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좋지 않

은 것은,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회의 축적된 재능을 약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선포하는 기관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데 있어 매우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로니한 일이다. 우리들의 행동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녀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평등의 모형을 제시해야 하지, 어떤 다른 방법이 나돌아서서는 아니된다.

평등권 조항이(ERA) 있든 없든, 여성의 권리는 오늘날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피할수 없는 현실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여, 부도덕한 자유와 같은 잉여 수화물을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혹은 다른 극단론자들 처럼, 우리의 머리를 모래속에 파묻고 계속하여,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 그들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도덕에 대하여 문을 여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결같이 모두가 정당하지 못하다. 모두가 비성서적이다. 그중 아무 것도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도록 발전하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 다른 한가지 견해가 있다. 이것은 이 모든 극단적인 견해보다 더욱 온당하며 더욱 사려깊은 견해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일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 즉 남성과 여성의 재능과 능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 관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하는 것

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최선이 성취 되도록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일하도록 격려하자는 견해이다.

주

-
1. Patrick Buchanan. "'60s Leftovers Warmed Up," *The Tennessean*, August 23, 1977.

참고문헌

- Alford, Henry.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Epistles to the Romans and Corinthians" in *The Greek Testament*. Cambridge: Deighton, Bell, and Co., 1871.
- Arndt, William F. and Gingrich, Wilbu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Balsdon, J. P. V. D. *Roman Women: Their History and Habits*.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1963.
- Barclay, William. *The Letter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alonian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6.
- . *The Letters to Timothy, Titus, Philemo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2.
- Bernard, J. H. *The Pastoral Epistles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
- Brown, Raymond Bryan. "I Corinthians"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10.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 Bruce, F. F. *The Book of Acts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8.
- . *New Testament Histor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9.
- , editor. "I and II Corinthians" in *The New Century Bible Series*. London: Butler and Tanner, Ltd., 1971.
- Carcopino, Jerome, translated by E. O. Lorimer. *Daily Life in Ancient Ro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 Cary, M. and Haerhoff, T. J. *Life and Thought in the Greek and Roman World*. New York: Barnes & Nobe Inc., 1959.
- Chase, Irah, translator. *The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 New York: D. Appleton and Co., 1847.
- Conzelmann, Hans,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I Corinth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 Dean, Robert J. *First Corinthians for Today*. Nashville: Broadman Press, 1972.
- Donaldson, James. *Woman: Her Position and Influence in Ancient*

- Greece and Rome, and Among the Early Christians*. London: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07.
- Ellicott, Charles J. *Commentary on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ndover: W. F. Draper, 1889.
- Eerdman, Charles R. *The Epistle of Paul to the Ephes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31.
- Farrar, F. W.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0.
- Grayston, Kenneth. *The Epistles to the Galatians and to the Philippians in Epworth Preacher's Commentaries*. London: The Epworth Press, 1957.
- Grosheide, F. W.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 Guthrie, Donald, editor. "Galatians" in *The New Century Bible Series*. Aylesbury, England: Hazell Watson & Viney Ltd., 1969.
- Hamilton, H. D. Esq., translator. *The Geography of Strabo*, Vol. II. London: Henry G. Bohn, York Street, Convent Garden, 1756.
- Harkness, Georgia. *Women in Church and Socie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 Harper, Joyce. *Women and the Gospel*. Pinner, Middlesex: C. B. R. F. Publications, 1974.
- Hendriksen, William.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7.
- Hinson, E. Glenn. "1-2 Timothy" and "Titus"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11. Nashville: Broadman Press, 1971.
- Hovey, Alvah, editor. *John in An America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Vol. III. Valley Forge: Judson Press, 1885.
- Hull, William E. and Tolbert, Malcolm O. *Luke-John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9.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 Jewett, Paul K. *Man as Male and Femal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Luke's Gospel*.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60.
- . *The Interpretation of St. Luke's Gospel*.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59.
- .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57.
- . *The Interpretation of I and II Corinthians*.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57.
- .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to*

-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60.
- .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umbus, Ohio: The Wartburg Press, 1946.
- Lias, J. J.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9.
- Lightfoot, J. B. "The Churches of Macedonia," *Biblical Essays.* London: Macmillan & Co., Ltd., 1904.
- .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7.
- .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7.
- .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7.
- . *Hebrew and Talmudical Exercitations Upon the Gospels, the Acts.* Oxford: University Press, 1859.
- Mollenkott, Virginia Ramey. *Women, Men and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7.
- Moody, Dale. "Romans"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10.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 Moule, C. F. D., editor.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 .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in The Cambridge Greek Testament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3.
- Moule, Handley C. G. *Ephesians Studie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2.
- Moulton, Harold K. *Colossians, Philemon and Ephesians in Epworth Preacher's Commentaries.* London: The Epworth Press, 1963.
- O'Faolain, Julia and Martines, Lauro, editors. *Not in God's Im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3.
- Orr, William F. and Walther, James Arthur. *Corinthians I in Anchor Bible Series*, Vol. 32. New York: Doubleday & Co., 1976.
- Quennell, Marjorie and Charles, H. Revised by Kathleen Freeman. *Everyday Things in Ancient Greece.*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4.
- Rad, Gerhard Von. *Genesis, Revised E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 Ridderbos, Herman N.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5.
- Robertson, Right Rev. Archibald and Plummer, Alfred.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in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1.
- Robertson, A. T. *A Harmony of the Gospels for Students of the Life of Chris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22.
- .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47.
- .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The Epistles of Paul, Vol. IV*. Nashville: Broadman Press, 1931.
- Robinson, Cyril E. *A History of Greece*. New York: Barnes & Noble Inc., Ninth edition, 1957.
- Sampley, J. Paul.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New Testament Studies*, No. 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Simpson, E. K. and Bruce, F. F. *Commentary on Ephesians and Colossians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8.
- Smith, T. C. "Acts" in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10.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 Wahlberg, Rachel Conrad. *Jesus According to a Woman*. New York: Paulist Press, 1975.
- Wuest, Kenneth S. *Ephesians and Colossia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4.
- Zinserling, Verena. *Women in Greece and Rome*. New York: Abner Schram, 1973.

●역자 약력●

- 1946년 5월 19일 경남 진주 출생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영어과 수료
- 총회신학대학 연구원 수료
-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신학석사)
- 침례신학대학 및 수도침례신학교 강사역임

●역서●

- 스페전의 설교에 나타난 센스 어필
-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예의 적용
- 4월의 사랑
- 집사의 아내

신약성서 여성관

초판 1쇄발행 • 1987년 3월 5일

초판 2쇄발행 • 1991년 6월 1일

저 자 • 설리 스티븐

역 자 • 정양숙

발 행 인 • 이상대

발 행 처 • 요단출판사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

FAX. (02) 780-0768

☎ 편집 (02) 780-0767

영업 (02) 780-0765, 6

출 판 등 록 • 1973. 8. 23. No. 13-10호

정가 1,800원

■ 직영서점 ■

요단기독교서적센터/서울시 서초구 반포동408-5

FAX. (02) 536-6266/☎ (02) 593-8715~7

대전침례회서관/대전시 동구 중동21-27

FAX. (042) 254-0356/☎ (042) 256-2109

침례신학대학구내서점/대전시 중구 목동 111-7

☎ (042) 254-5689